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67호 【루계 제24680호】 주체103(2014)년 9월 24일 (수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북도의 여러 단위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신의주시에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충정을 바친 평안북도의 여러 단위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평안북도정보통신국, 무역은행 평안북도지점, 도관광관리국, 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는 사업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였으며 수많은 자재들도 보내주었다.

신의주대외운수회사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는 사업에 필요한 물동량수송과 기계설비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면서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간직한 돌격대원들인 신의주지방공업종합상점 판매원 김옥경, 신의주시영화보급소 로동자 안명옥은 맡은 일은 물론 지원사업에서도 모범을 보이였다.

평안북도영화국 로동자 변정렴의 가정, 판문려관 로동자 김송이,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교양원들인 차명희, 박춘화, 도품질감독국 산하단위 로동자 오성희, 신의주시도시시설사업소 로동자 탁철혁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에 뜨거운 마음을 바치였다.

인민봉사총국 산하단위 책임부원 안신옥, 로동자 전은경은 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주었으며 도인민위원회 산하단위 소장 림명숙, 로동자 박경숙, 최란, 리은정, 신의주시 친선지구종합진료소 소장 리영란도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한마음안고 평안북도무역관리국 초급청년동맹위원장 조일화, 압록강유원지관리소 로동자 김영금, 압록강각 로동자 김성숙, 신의주시 성남동 12인민반 김명옥은 많은 설비와 자재, 후방물자들을 가지고 돌격대원들을 찾아가 그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영예군인들인 신의주시 관문동 33인민반 정완기와 그의 가정, 해방동 18인민반 리성희, 동상동 15인민반 김성진은 성의있는 지원으로 돌격대원들을 고무해주었으며 청송동 34인민반 리애순, 동하동 71인민반 리승순, 풍서2동 35인민반 리영실도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는 심정으로 지원사업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일에 참답게 이바지할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자주의 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씨야출판보도물들 특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출판보도물들이 11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특집하였다.

신문 《쎌스까야 쥐즌》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자주의 나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자면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한다는것은 최근년간의 국제사변들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에 맞설 힘이 없어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당하고 류혈과 붕괴의 비극을 겪고있다.

하지만 제국주의의 힘의 정책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2012년 12월 조선이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하자 미국은 그것을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반제자주적인 조선을 압살하기 위해서였다.

그 어느 나라에나 부여된 평화적인 우주개발권리를 침해하는 적대세력들에 맞서 조선은 제3차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자기의 자주권뿐아니라 국제적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의 핵시험을 걸고 보다 강도높은 《제재결의》를 조작하였다. 또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 또다시 전쟁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조선의 천만군민은 결전진입태세에 들어갔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끊임없이 시찰하시면서 적들이 조국의 령해, 령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호되게 답새기고 다시는 움찍하지 못하게 적진을 아예 벌초해버릴데 대해 강조하시였다.

또한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갈것을 지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은 미국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것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자주권수호를 위한 결사항전에 떨쳐나선 조선의 군대와 인민앞에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기가 꺾이지 않을수 없었다.

특히 주목하게 되는것은 미국이 핵으로 조선을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것이다.

조선은 핵무기를 휘두르는 미국에 위력한 자기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서고있다.

조선의 강력한 전쟁억제력은 단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만이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믿음직한 담보이다.

제국주의련합세력에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고있는 조선은 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있으며 세계자주화위업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인터네트홈페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잊지 못할 인민의 령도자》, 《불패의 사회주의강국》 등 제목의 글들을 올렸다.

또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조국찬가》 등 우리 나라 노래들과 선군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소개하는 사진들을 함께 편집하였다.

인터네트잡지들인 《한베르 져널》, 《렘취취》와 로스또브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크림주체사상연구협회, 반《세계화》운동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우리 공화국의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소개하는 글들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장하다 어머니조국을 빛내인 미더운 아들들이여!

2014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선수들 귀국, 평양시민들 열렬히 환영

【평양 9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체육성과들이 련일 창조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국제축구무대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쾌승이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있다.

지난 9월 6일부터 20일까지 타이에서 진행된 2014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에서 우리의 나어린 남자축구선수들이 지역의 강팀들을 누르고 어머니조국에 영예의 우승컵을 안아왔다.

수많은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 보도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번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은 조별련맹전을 승리적으로 결속한데 이어 준결승경기에서 오스트랄리아팀을 5:2로 누르고 결승경기에 진출하였다.

남조선팀과 대전한 우리 선수들은 우승을 노리는 상대를 강의한 공격정신과 단결력, 대담하고 기발한 전술로 통쾌하게 타승함으로써 오각별찬란한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체육강국으로 기세차게 솟구쳐오르는 우리 나라의 참모습을 남김없이 보여준 이들의 승리는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워가는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아시아청소년축구계의 패권을 잡고 2015년에 진행되는 국제축구련맹 17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 참가자격을 획득한 미더운 축구선수들이 23일 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이날 수도 평양은 선군조선의 위용을 과시한 우리의 장한 축구선수들이 도착한다는 소식에 접하여 떨쳐나선 수많은 시민들의 환영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평양역으로부터 동성다리, 천리마거리, 만수대거리 등에 이르는 연도는 손에손에 기발과 꽃다발, 고무풍선을 들고나온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등의 구호판들이 평양역구내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2014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돌아오는 선수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구호판이 세워져있었다.

우리 팀이 아시아청소년축구계의 패권을 쥐였다는 보도가 전해진 때로부터 수도시민들은 미덥고 자랑스러운 축구선수들을 맞이할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역구내에 렬차가 도착하자 환영의 꽃바다가 펼쳐졌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동지, 리룡남대외경제상, 오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선수들을 맞이하였다.

체육인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가족들이 조국을 빛내인 그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경기성과를 축하해주었다.

무한한 기쁨과 감격에 휩싸인 선수들을 태운 뻐스가 평양역광장을 출발하였다.

연도에서는 《장하다!》, 《환영!》, 《축하!》 등의 함성이 터져오르고 환희의 꽃물결이 세차게 설레이였다.

선교구역 근로자들의 취주악과 노래소리가 울려퍼지는 속에 선수들이 탄 뻐스가 환영의 파도를 헤가르며 거리를 누벼나갔다.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혁혁한 위훈을 세우고 조국의 품에 안긴 축구명수들을 연도에 늘어선 중구역, 평천구역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강의한 정신력과 집단의 단결력, 높은 기술로 남조선팀과의 결승전에서 통쾌한 득점장면들을 펼치는 그들의 모습을 TV화면으로 보며 온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일렁이던 격정의 파도이런가 뻐스의 앞길에 꽃보라가 뿌려지고 환영의 꽃바다, 기쁨의 춤바다가 펼쳐졌다.

고향집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주듯이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설수 있도록 안아키워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싸워이긴 아들들에게 오늘은 이토록 크나큰 영광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그들모두는 격정의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가장 값높은 영예의 금메달, 인민의 축하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분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비단 팀의 승리를 이끈 연광무 책임감독만이 터치는 심장의 목소리가 아니였다.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한 나어린 체육인들을 개선장군마냥 떠받들어주는 어머니당의 은정에 석탄공업성, 금속공업성, 채취공업성, 경공업성의 정무원들과 중구역, 평천구역, 보통강구역의 군중들도 격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국제경기마다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도, 온 나라에 타번지는 체육열풍도 당의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임을 다시금 절감하며 선수들과 군중들은 끝없는 기쁨과 흥분을 함께 나누었다.

어디 한번 안아보자, 손이라도 잡아보자며 서로서로 키돋움을 하고 어깨성을 쌓으며 열렬히 마중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서 선수권대회 전기간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함께 싸워온 정답고 고마운 마음을 읽으며 선수들은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였다.

우리 선수들의 혁혁한 경기성과에 고무되여 일터마다에서 혁신을 창조한 자랑안고 연도에 달려나온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326전선공장, 평양베아링공장의 로동자들이 세계축구의 패권자로 우뚝 올라설 래일을 축복하며 중학시절의 꽃나이에 조국의 영예를 세계에 떨친 나어린 축구강자들에게 전투적인사를 보내였다.

모란봉구역, 대성구역, 서성구역 군중들이 늘어선 천리마거리로 들어서는 새 세대 축구강자들의 심장은 더 세차게 들먹이였다.

지난 세기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아시아력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하여 천리마조선의 기상을 떨친 전세대와 새 세기 제3차 세계청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축구팀을 비롯하여 주체체육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나어린 축구선수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온 거리를 뜨겁게 달구었다.

축구선수들과 환영군중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당의 손길아래 최근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고있는 주체체육의 경이적인 성과들이 안겨왔다.

지금 이 시각도 또다시 세계력기계를 놀래운 엄윤철, 김은국선수들을 비롯한 우리 선수들의 련이은 우승소식을 생각할수록 온몸에 새힘과 용기가 북받쳐오른다고 하면서 그들은 당의 품에서 자란 체육인들이 정말 장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로동자 윤희준은 박영관선수가 넘겨준 공을 한광성선수가 잡아 멋있게 득점하는 장면이 참으로 통쾌하였다고 기쁨을 토로하였다.

최성혁선수가 남조선팀의 방어수가 놓친 공을 꼴문대로 강하게 차넣을 때에는 너도나도 얼싸안고 《이겼다!》고 환성을 터쳤다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주정혁의 말에도 조선청년의 본때와 기개를 만방에 떨친 선수들에 대한 부러움이 한껏 실려있었다.

시민들의 환영은 만수대거리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살림집들의 베란다와 창가들에서, 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승리자의 웃음 함뿍 담고 꽃물결에 실려오는 선수들에게 손을 흔들며 열렬한 축하와 환영의 꽃보라를 뿌려주었다.

김형직사범대학, 조선체육대학 청년대학생들이 목청껏 부르는 《축하합니다!》, 《잘 싸웠습니다!》의 웨침소리가 수도의 하늘가에 메아리쳐갔다.

뻐스가 인민극장앞을 지나자 대동강구역의 청년학생들이 그들을 뜨겁게 환영하였다.

선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숭엄한 영상을 우러러 그들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앞으로의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림으로써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으로 빛내이는데 이바지해갈 충정의 맹세가 그들모두의 심장마다에 차넘쳤다.

새 세대 축구강자들을 축하하여 수도 평양에 펼쳐진 이날의 화폭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더 높이 떨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기상과 혁명적열의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친근한 벗이신 제1위원장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네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각하께와 조선인민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려는 우리들의 립장을 재확언합니다.
친근한 벗이신 제1위원장각하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표합니다.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
2014년 9월 5일 말라보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각하

최고령도자각하
나는 귀국의 국경절에 즈음하여 꽁고인민과 정부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각하께서 행복하시고 조선인민에게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꽁고공화국 대통령
데니 싸쑤 느게쏘
2014년 9월 5일 브라자빌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에 즈음하여 각하께와 그리고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커다란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지난 기간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호상관계가 강화된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관계가 더욱 공고화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브루네이 다루쌀람 추장, 국가수반
하지 하싸날 볼키아흐
2014년 9월 6일 반다르 세리 베가완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인 국경절에 즈음하여 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오만추장국 추장
까부스 빈 싸이드
2014년 9월 7일 마스까트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제1위원장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6돐을 경축하는 이 기회에 캄보쟈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아울러 당신께서 성과를 거두실것과 행복하실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귀국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단결, 협조관계가 앞으로 계속 확대발전되리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제1위원장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캄보쟈왕국 국왕
노로돔 시하모니
2014년 9월 8일 베이징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각하께 르완다정부와 인민의 이름으로 따뜻한 인사와 충심으로부터의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과 협조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확언하는바입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실것과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보다 큰 성과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르완다공화국 대통령
뽈 까가메
2014년 9월 9일 끼갈리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에 즈음하여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쌍무적호상협력이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며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각하
나는 당신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면서 당신께서 건강하실것과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하며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평화와 번영, 복리가 있을것을 바랍니다.

벨라루씨공화국 대통령
알렉싼드르 루까쉔꼬
2014년 9월 9일 민스크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귀국인민이 국경절을 경축하고있는 때에 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면서 친선적인 우리 두 나라, 두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가 계속 강화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념원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각하께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쿠웨이트국가 추장
사바흐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흐
2014년 9월 9일 쿠웨이트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귀국의 국경절 66돐을 맞이하는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력사적인 날을 맞이하는 이 기회에 현존하는 우리 두 나라와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협조의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당신과 귀 정부와 협력해나갈 우리의 의지를 재확언합니다.
각하
나는 당신께서 부디 건강하실것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자카야 음리쇼 키크웨테
2014년 9월 9일 다르 에스 살람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하쉐미트요르단왕국 인민과 정부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언제나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하쉐미트요르단왕국 국왕
아브둘라흐 2세
2014년 9월 9일 암만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
《길이 빛나라 수안땅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이여》
수안군에 건립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사적비 《길이 빛나라 수안땅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이여》가 수안군에 건립되였다.
수안군에는 나라의 농업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어려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희세의 위인들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일 일념안고 천연화강석을 정히 다듬어 현지지도사적비를 정중히 건립하였다.
준공식이 21일에 진행되였다.
박태덕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관계부문 일군들, 군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수안군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창기가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차례에 걸쳐 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군소재지를 잘 꾸리고 알곡생산을 늘일데 대한 문제와 축산, 과수, 잠업을 발전시키고 농촌에 문화주택을 많이 건설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군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제때에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한 문제 등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수안땅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되였다고 말하였다.
많은 지방공업공장, 문화주택들과 교육기관, 문화봉사기지들이 일떠서고 토지정리와 관개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알곡생산과 과수, 축산업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발전소들이 훌륭히 건설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지금 진행하고있는 발전소건설을 다그쳐 전력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며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쳐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 생산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당면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다그쳐 끝내여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할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축산을 더욱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생산과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하며 국토관리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현지지도사적비에 대한 해설을 듣고 비를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참관자들
—장산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주체시대를 빛내이시며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성자립

민족사에 있어본적 없는 애국의 열풍이 이 땅에 일고있다.
주체철을 뽑아내는 용해공의 눈빛에도 바다를 막아나가는 간석지건설자의 기상에도 최첨단을 돌파해가는 과학자의 가슴에도 고귀한 넋이 끓어번지고있다.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조선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심장으로 화답하지 않을수 없는 이 불같은 호소가 우리모두의 가슴에 뚜렷이 새겨지게 된것은 주체99(2010)년 4월 12일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완공된 전자도서관을 돌아보시려 또다시 우리 김일성종합대학에 나오시였다.
《새로 건설한 전자도서관이 아주 멋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이 대학의 다른 청사건물들과 잘 어울립니다.》
그이의 흐뭇한 음성이 웅장화려하게 꾸려진 홀안에 울리였다.
원래 있던 본교사건물을 들어내고 그 자리에 전자도서관을 건설하기 정말 잘하였다고, 전자도서관을 처음에 예견하였던 자리보다 여기에 건설한것이 더 낫다고 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해전의 일을 돌이켜보게 해주었다.
그전해 3월 완공된 대학수영관에 나오시였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과학도서관옆 공지에 전자도서관을 건설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좁은 안목을 이렇게 틔여주시였다.
내 생각에는 전자도서관을 새로 건설하느라고 하지 말고 본교사를 개작하여 쓰는것이 좋을것 같다. 본교사에 현대적인 전자도서관을 꾸려놓으면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늘 흥성거리게 되고 그곳이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친근한 곳으로, 김일성종합대학의 중심으로 될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콤퓨터망을 형성하자고 하여도 본교사를 전자도서관으로 꾸리는것이 좋다. …
이렇게 도서관위치를 확정해주신 장군님께서는 관록있는 설계집단과 힘있는 건설력량, 최우수정보기술집단을 동원시켜 설계와 시공, 설비구입과 설치, 운영시험에 이르는 전과정이 힘있게 진척되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그해 10월 10일에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이런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1류급의 대학으로, 주체과학의 최고전당으로 훌륭하게 꾸려주어야 합니다. 종합대학에 지금 건설하고있는 전자도서관도 동양에서는 최고라고 할수 있게 꾸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달받은 우리는 끝없이 격동되였다.
흔히 1류급대학이라고 하면 뛰여난 인재의 배출정형과 학술적공적, 교육과학력량과 물질기술적토대, 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와 국제적인 학술교류능력 등 여러 지표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대학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김일성종합대학을 그저 1류급대학이 아니라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1류급대학으로 꾸려주시려는것이였다.
이처럼 장군님께서 구상하고계시는 우리 대학의 위치는 바로 세계의 맨 앞자리였다.
중앙홀에 들어서신 첫 순간부터 희한하다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거듭되이신 그이께서는 과학도서관과 련결되는 외랑과 열람홀들, 여러 방들을 돌아보시면서 이 기둥에 붙인 돌은 무슨 돌인가, 기둥모서리장식처리는 어떻게 한것인가 등 세세히 료해하시고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이번에 공병부대 군인건설자들이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건설을 짧은 기간에 하면서도 질적으로 아주 잘하였습니다. 시공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하였습니다. …
이번에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창조물로 일떠세운 공병부대 군인건설자들에게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이께서는 도로포장을 담당한 군인건설자들도 수고를 하였다, 이 부대 군인건설자들도 당에서 맡겨준 과업을 와닥닥 해제끼는데서 명수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의 주변도로포장을 담당한 부대 군인건설자들에게도 최고사령관의 감사를 주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대학 전자도서관은 건축물뿐아니라 정보기술설비들은 물론 자료기지능력, 봉사내용과 관리운영체계에서도 세계에 당당히 자랑할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교육과학중심기지로 꾸려졌다.
거대한 용량의 최신식봉사기와 수많은 콤퓨터로 장비되였고 방대한 량의 자료기지와 최첨단정보기술체계에 의거하여 학습과 과학연구사업은 물론 국제적인 학술교류도 원만히 할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있으며 본관을 중심으로 대학안의 모든 단위들을 련결하는 높은 수준의 전자망이 형성되여있다.
검색홀에 설치된 대형후면투영막을 보시며 도서관일군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종합해설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먼저 2층에 있는 대중열람홀을 돌아보시였다.
일군이 홀입구에 있는 콤퓨터를 조종해보이면서 여기에서 새책소개를 비롯한 안내봉사를 받을수 있게 되여있고 지금 현시되는 도서들이 장군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도서들이라고 보고드리였다.
그이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드넓은 홀안을 둘러보시였다.
백수십명의 교직원, 학생들이 조국의 미래를 설계하고있는 그곳은 말그대로 콤퓨터《바다》였다.
장군님의 만면에 미소가 어리였다.
행복한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같은, 미더운 제자들을 지켜보는 스승과도 같은 그 자애깊은 모습에 나는 눈굽이 저릿해졌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바라보는것으로 만족치 않으신듯 한 콤퓨터탁으로 다가가시였다.
그 탁에서는 외국어문학부의 한 강좌장이 자료열람을 하고있었는데 그는 13개의 외국어를 소유하고 9개나라 말은 자유롭게 통역할수 있는 실력가였다.
이런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이제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외국어를 사전의 도움을 받아 번역한다면 대학졸업생자격이 없다고 할수 있다고 그루를 박으시였다.
그리고 또 다른 탁에 가시여 한 학생이 주체사상학습자료검색체계를 열람하는 모습도 한참이나 보아주시였다.
나는 이 주체사상학습자료검색체계는 대학에서 장군님의 말씀을 받고 완성한것인데 단어를 통한 검색뿐아니라 목적하는 주제의 내용검색까지 할수 있어 호평이 대단하다고, 앞으로 이것을 인민군대의 매 중대들에 보내주고 사회에도 보급하려 한다고 말씀올렸다.
계속하여 여러가지 프로그람교육을 할수 있게 되여있는 콤퓨터교육실, 무선통신체계가 도입되여 망에 련결하지 않고도 노트형콤퓨터로 망접속을 할수 있게 된 학술교류실을 돌아보시던 그이께서 문득 물으시였다.
《다른 나라 전자도서관에 가본 동무들이 없소?》
나와 한 일군이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 대학도서관들을 돌아본 실태를 보고드렸다. 력사와 관록을 자랑하는 대학들이였지만 도서관의 건물수준이나 봉사내용에서는 우리 대학 전자도서관에 비할바가 못되였다.
이런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이 다른 나라의 전자도서관보다도 더 훌륭하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3층에 있는 원격강의실, 무선망체계가 도입되여있는 토론실들…
장군님을 모시고 계속 돌아보느라니 나에게는 우리 대학생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아안았는가 하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갈마들며 40년전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대학에 훌륭한 과학도서관을 마련해주시고 몸소 현지에 나오시여 믿음과 정을 한껏 담아 하셨다는 말씀이 떠올랐다.
《이렇게 해주어도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하면 볼기를 쳐야지.》
나는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이번에 장군님께서 훌륭한 전자도서관을 마련해주시였으니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된볼기를 쳐야 할것 같다고 무랍없이 말씀올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제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시내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지 않고 이 전자도서관으로 찾아와 공부를 잘할것이라고 뜨거운 믿음을 표시하시였다.
이렇게 5층 종합강의실까지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다시 2층홀에 이르시여 총적인 평가를 내리시였다.
《오늘 돌아보니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을 흠잡을데가 없이 현대적으로 아주 잘 건설하였습니다. 설계도 잘하였고 시공도 나무랄데 없으며 설비들도 최신형으로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잘 갖추어놓았습니다. 최상급의 전자도서관이 꾸려져 김일성종합대학이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으로서의 체모를 갖출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전자도서관의 수용능력을 알아보시고 많은 교직원,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학습을 할수 있게 되였다고 기뻐하시면서 앞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전자도서관을 잘 관리운영하여 대학생들을 실력이 높은 혁명인재로 더 잘 키워내야 하겠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백두산3대장군의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는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남겨주실것을 바라는 우리들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다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촬영이 끝나자 그이께 우리는 독사진을 찍어주실것을 청드렸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만이 아닌 력사와 인민의 요구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학책임일군들이 올해는 내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시작한지 50돐이 되는 해이며 50년전 9월 1일에는 학생복차림의 기념사진을 남겼다고 하면서 오늘 전자도서관 중앙홀에서 독사진을 찍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데 나는 독사진을 찍는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력사와 인민의 요구라니 찍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 뜻깊은 친필명제판을 배경으로 서시였다.
촬영기의 섬광이 번쩍이였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참으로 신비한 격정을 체험하였다.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은 펜을 달리시는 그이의 사색깊은 모습으로 안겨오고 배경의 친필명제는 그이의 힘있는 음성으로 나의 귀전을 울리는것만 같았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숭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애국의 피가 펄펄 끓게 하고 세계를 압도할 배짱과 담력이 활화산마냥 솟구치게 하는 불같은 호소였다.

3면으로 계속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으로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열어간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일군들과 탄부들

격전의 분과 초가 흐른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붙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전력증산투쟁으로 용암마냥 끓어번지는 북창의 대동력기지와 숨결을 같이한 득장탄전, 지금 여기서는 격전의 분과 초가 흐르고있다.

당의 요구, 조국의 당부인 북창의 증산동음이 곧 석탄증산과 잇닿아있다는 비상한 자각이 공기처럼 흐르는 탄전이다. 백열전이 벌어지는 채탄막장들과 굴진막장들, 벨트콘베아를 타고 쉬임없이 석탄이 쏟아져내리는 저탄장들과 꼬리긴 석탄화차들을 달고 출발을 알리는 화력탄집중수송렬차들의 기적소리에도 한몸이 그대로 석탄이 되여서라도 대동력기지의 숨결을 더해주려는 이곳 탄부들의 불같은 열의가 맥박치고있다.

지난 9월초 련합기업소앞에는 매일 화력탄보장량을 종전의 1.6배로 끌어올려야 할 무거운 임무가 제기되였다. 단번에 석탄생산량을 그만한 높이에 끌어올린다는것은 련합기업소의 현존조건으로 보아 거의나 불가능하다고 할수 있었다. 그러나 득장의 탄부들은 당의 전투적호소에 실천으로, 실적으로 화답하였다. 련합기업소적인 석탄생산량은 비약적으로 뛰여올라 단며칠만에 증산목표를 돌파하였고 북창의 대동력기지로는 석탄을 무드기 실은 집중수송렬차들이 련속 떠나가고있다.

1선참호에서 울리는 돌격구령

화력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접한 즉시에 열린 련합기업소적인 협의회에서 울려나온 증산방도는 명백하였다.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과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오늘의 석탄증산투쟁이 곧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며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자각한 일군들이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1선참호를 차지하였다. 당, 행정책임일군들부터가 한개 탄광씩 맡고 내려갔고 련합기업소안의 모든 일군들이 채탄중대, 굴진소대들마다에 자기의 공격좌지를 정하였다. 갱들과 중대, 소대들마다에 증산목표가 정해지고 착암기와 정대를 틀어쥔 일군들의 이신작칙이 돌격구령을 대신했다.

막장들마다가 증산의 열풍으로 끓어번지기 시작하자 압축기의 능력을 높이고 막장소공구들을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이 련이어 취해졌다. 석탄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운반문제를 풀기 위한 혁신적인 방도들도 탐구되였다.

교대와 하루생산총화의 형식이 달라졌다. 탄부들은 증산목표를 수행하기 전에는 막장을 뜨려 하지 않았고 탄광의 일군들도 지령탁에서가 아니라 갱들과 막장들을 돌면서 실적을 종합하고 총화하군 하였다.

련합기업소적인 생산총화의 격식도 깨여졌다. 기동예술선동대의 선동공연이 총화보고서를 대신하고 생동한 경험토론들이 경쟁열을 북돋아주었으며 기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안들이 증산투쟁에 새로운 박차를 가해주었다.

일군들과 탄부들의 정신력이 발동되자 석탄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뛰여올랐다. 득장청년탄광에서는 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증산목표를 돌파하는 눈부신 기적이 창조되였고 룡산탄광에서는 대번에 채탄장개소가 9개나 더 늘어나 석탄이 팡팡 쏟아져나왔다. 명학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사생결단의 의지로 달라붙어 석탄생산량을 계단식으로 늘인 결과 끝끝내 증산목표를 점령하였다.

보다 큰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득장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오늘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있다.

—증산목표돌파는 새로운 승리를 위한 도약대에 불과하다. 대동력기지의 박동이 더 거세차게 울리여 조국이 마음먹은대로 설계하고 비약의 더 큰 걸음을 내짚을수 있게 탄부된 구실을 다하자.

이런 비상한 열의를 안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차지한 교두보를 확대하고 생산량을 계속 늘이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펼치고있다.

룡산탄광에 새로운 갱을 건설하고 득장청년탄광의 기본굴진에 력량을 집중하여 확보탄량을 늘이는것과 함께 명학탄광에 새로운 사갱을 뚫어 석탄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통이 큰 작전들이 무르익고있다.

현존조건에서 증가된 화력탄생산량만 보장하기도 헐치 않지만 이곳 일군들의 결심은 확고하며 신심에 넘쳐 일판을 전개하고있다.

탄광들에 있는 오래된 압축기들을 기술개건하여 전반적인 압축기능력을 1.2~1.3배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 박력있게 추진되고있으며 고속도굴진, 굴진소대들의 력량과 장비를 보강하여 전망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한 사업도 계획적으로 실속있게 진행되고있다.

련합기업소의 병기창이라고 할수 있는 탄광기계공장에서는 현행생산을 믿음직하게 뒤받침하면서도 가까운 기간에 전반적인 설비들과 기술장비수준을 한계단 끌어올리는데 모를 박고 생산과 기술혁신투쟁을 과감하게 벌려나가고있다.

격전의 분과 초가 흐르는 이곳에서 우리는 몸은 비록 수천척지하막장에 있어도 마음은 당이 바라고 조국이 지켜보는 대동력기지의 숨결에 얹어놓고 사는 탄부들의 불같은 정신세계를 보고있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득장청년탄광에서—

대오의 앞장에 선 화선지휘관들

막장에서의 당회의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이 서있는 전투지휘처는 어디인가.

지난 9월초, 련합기업소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득장청년탄광, 룡산탄광, 명학탄광의 막장들에서는 당회의가 있었다.

그날 명학탄광 1갱 굴진 2세포에 내려갔던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자기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탄부들을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워주는 당의 믿음에 보답할 때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한몸이 그대로 뢰관이 되고 폭약이 되여서라도 그 믿음과 기대에 꼭 보답합시다.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합시다.》

기관차를 함께 타고

득장의 탄전들에서 북창의 대동력기지로 오가는 렬차의 기관차들에는 기관사와 승무원들만 타고있지 않다.

화력탄수송이자 전력생산이라는것을 자각한 철도성과 평양철도국, 북창철도분국의 일군들도 타고있다.

나라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데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있는 이들은 현장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화력탄수송에 기관차, 화차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있다. 그들은 수송전사들과 함께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당회의가 끝난 다음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갱막장들은 용암마냥 끓어번지였다.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석탄증산의 동음높은 곳에는 언제나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이 있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은 막장에서 착암기를 틀어잡고 굴진전투도 벌리고 채탄장에서 채탄도 하면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본때있게 벌리였다.

그렇다. 들끓는 전투장의 한복판, 바로 여기가 오늘 우리 당일군들이 서야 할 전투지휘처이다.

함께 타고

기관차의 실동률과 화차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여 화력탄집중수송의 열풍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화력탄수송성과는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하기에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을 한전호에선 전초병들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고있다.

득장탄광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

탄전의 병기창

—오늘날 석탄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이다. 전초선에 더 많은 설비와 부속품을!

이런 결심과 각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득장탄광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산악같이 일떠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과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기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석탄과 철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접하고 공장에서는 초급당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다.

초급당비서 리인철동무의 목소리가 쩡쩡 울리였다.

《동무들, 화력탄보장이자 곧 전력생산이라는것을 명심합시다. 우리가 련합기업소의 탄광들에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기업소의 석탄생산이 결정됩니다. 물론 부족되는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연길폭탄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초급당일군의 목소리는 일군들의 심장마다에 불을 달았다.

공장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였다.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일군들이 전투장한복판에 자기 위치를 정하였다.

생산장성의 예비는 대중의 심장속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공장의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걸린 고리들을 풀기 위한 방도를 찾아나갔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도 활발히 벌리였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주물직장, 가공직장, 수리직장을 비롯한 전투현장들에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이라는 표어들이 나붙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전투속보판들이 기동성있게 전개되였다.

당세포비서들과 선동원들의 역할이 높아지고 여러 계기들마다에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는 정치사업들이 격식없이 벌어지고있다.

전투장들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다.

지난 기간 10㎥압축기를 자체의 힘으로 살려낸 가공직장의 정재석, 류일훈, 김응선동무를 비롯한 기술자, 기능공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또다시 20㎥압축기를 살려내기 위한 전투에 들어갔다.

주강작업반의 조효성, 전학철, 리은철동무들이 밀폐식탄차바퀴를 련속 생산해낼 때 압연작업반의 류인철, 박학철동무들도 레루못과 전차선, 용접봉소재생산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전투의 나날 공장의 면모가 몰라보게 달라지고있다.

매일 아침 공장의 일과는 대중률동체조와 건강태권도로부터 시작되고있으며 집단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그것은 득장지구 탄전들에서 높은 석탄증산실적을 낳고있다.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부속품은 념려말라!

이것이 백두의 혁명정신 나래치는 병기창, 득장탄광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심장에서 울려나오는 한결같은 웨침이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일어난 룡산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높이 내세운 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가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에게 전해진 다음날부터 탄광의 석탄생산량은 이전에 비해 1.2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 다른 탄광들에 비해 채탄장조건이 불리하고 운반거리가 먼 탄광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투쟁성과는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할 비상한 결의를 안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탄부들의 정신력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창조와 혁신의 가장 큰 예비, 기적창조의 근본열쇠는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발동시키는데 있습니다.》

운영채탄장을 2배로 늘여

룡산탄광에서

명학탄광 1갱에서 며칠전 저녁 6시경,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였다.

운반갱도를 따라 석탄을 무드기 실은 탄차행렬을 달고 달리던 전차가 멎어섰다. 근 15m구간의 전차로선이 침하되여 더 전진할수 없었던것이다. 원인은 아래층단을 지나간 페갱에 짐이 실리면서 로반이 내려앉은데 있었다.

갱에서 하루전투계획을 수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관건적인 시각이였다. 불의에 부닥친 정황으로 갱의 전투목표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탄광적인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수 있었다.

갱장 림영활동무는 즉시에 결심을 내렸다. 전차와 탄차들을 밀어서 침하구간을 통과시키는 것과 함께 페갱에 방틀을 쌓아올려 내려앉은 구간을 버티여주자는것이였다.

문제는 필요한 로력이였다. 막장에서 전투중에 있는 로력을 떼여낸다면 그만큼 석탄생산과 굴진에 지장을 줄수 있었다. 분초급당비서와 협의한 그는 교대를 끝마치고 들어간 초급일군들로 정황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얼마후 10여명의 초급일군들이 달려들어오고 탄광기사장도 현장에 내려와 전투를 지휘하였다.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는 페갱속에서의 방틀조립작업은 사생결단의 의지와 완강성을 요구했다. 불과 10여명의 로력으로 육중한 통나무들을 비좁은 페갱속으로 메여나르고 한돌기한돌기 방틀을 쌓아나가는 과정은 그대로 사생결단의 순간순간이였다.

이렇게 분분초초가 흘러 결사의 6시간이 지나갔다.

침하된 구간의 전차로선은 복구되였고 탄차행렬을 단 전차는 다시 기세좋게 달리기 시작하였다.

이날 탄광에서는 말겨진 증산목표보다 한차량 더 많은 석탄화차들을 북창의 대동력기지로 떠나보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결사의 6시간

비약이 일어났다.

모든 전투장에서 생산성과가 계단식으로 확대되였다.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굴진을 일관성있게 내밀어 예비채탄장을 넉넉히 마련해놓은것이 전투시작부터 뚜렷한 생활력을 과시하였다. 지난 7월과 8월 련합기업소적인 굴진경기에서도 탄광의 모든 굴진소대들이 앞자리에 섰으며 이 과정에 적지 않은 예비채탄장들이 더 마련되였다.

이미 이룩해놓은 이러한 성과에 토대하여 탄광에서는 증산목표돌파를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운영채탄장을 더 늘이는데서 찾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탄광참모부에서는 모든 갱들에서 운영채탄장을 하나씩 더 늘이는 한편 소규모적인 채탄장들도 일시에 운영하여 석탄생산을 늘일 목표를 내세웠다. 그렇게 되면 운영채탄장은 2배로 늘어나게 되고 높이 내세운 증산목표를 얼마든지 달성할수 있었다.

운영채탄장을 늘이자면 로력문제가 해결되여야 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전달받고 지상단위의 로동자들이 증산돌격전에 떨쳐나설것을 앞을 다투어 결의해나섰다.

그리하여 탄광에서는 일군들과 지상단위의 로동자들을 망라한 돌격대가 무어지게 되였다.

탄광의 모든 갱들에서 증산목표를 돌파하기 위한 결사전이 개시되였다.

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 갱막장으로 들어갔다.

막장에 깊숙이 몸을 잠근 일군들은 탄상조건에 맞는 앞선 채탄방법으로 생산을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도를 제시하면서 증산의 돌격로를 앞장에서 열어나갔다.

지하막장마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9월 보름동안에 2갱 채탄2중대의 탄부들이 이전시기에 비해 하루평균 석탄생산을 1.5배로 끌어올렸다면 6갱 채탄중대, 5갱 채탄1중대에서는 1.3배, 1.4배이상으로 높이였다.

이밖에도 모든 채탄중대들과 지상단위들의 로동자들로 무어진 돌격대들에서도 하루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혁신의 불길은 이렇게 타올랐다. 5갱의 지하막장에서는 석수가 끊임없이 쏟아져내렸고 다른 채탄막장들에서는 뜻하지 않은 붕락도 있었다.

하지만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뛰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결사전에 나선 일군들과 탄부들의 전진을 멈출수가 없었다.

탄광의 채탄중대들에서 석탄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 때 고속도굴진, 굴진소대들에서는 교대당 발파 두 순환을 보장하는 혁신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오늘보다 더 좋은 생산성과가 이룩될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있다.

2면에서 계속

조선의 아들딸로서, 김일성동지의 후손으로서 민족앞에, 력사앞에 그리고 먼 후대들앞에도 떳떳하게 나설수 있도록 생의 원대한 목표를 세워주는 글발이였다.

해솟는 룡남산마루에서 조선을 누리에 빛내일 맹세를 다지시던 때로부터 어언 50년, 그 반세기의 날과 달들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 깡그리 바쳐오시는 장군님께서 자신의 심장속에 간직되여있는 고귀한 넋을 우리모두의 심장속에 새겨주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날 2호교사에 꾸려놓은 교육과학전시관도 돌아보시였다.

총서장, 교육장, 과학장, 착상장 등으로 꾸려져있는 전시관에는 지난 60여년간 우리 대학에 새기신 백두산3대장군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과 그에 따라 이룩된 성과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나의 설명을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깊은 감회를 담아 말씀하시였다.

《총서장에 대한 해설을 들어보니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대학이 창립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63년동안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경제학, 력사학, 철학 등 사회과학부문과 수학력학, 콤퓨터과학, 물리학, 핵과학 등 자연과학부문의 성과자료들이 전시된 교육장과 교원, 연구사들의 과학기술적성과자료를 보여주는 과학장도 주의깊이 돌아보시면서 지난 기간 일을 많이 하였다고, 대학에서 발명해낸것이 많다고 치하를 아끼지 않으시였다.

그리고 착상장에 가시여서는 의자에 앉아 설명을 들으시면서 거듭 과분한 평가를 주시였다.

그곳에는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착상한 12개의 방안이 게시되여있었다.

전시관일군이 매 안들을 설명해올릴 때마다 한번 해볼만한 일이라고, 자신은 이 방안을 지지한다고 고무격려도 해주시던 장군님께서는 화력발전소타빈랭각수와 지하수를 리용한 난방보장방도에 대해 들으신 후 이런 착상은 추운 고생을 해본 사람만이 할수 있다고, 교원들이 얼마나 추웠으면 이런 착상을 다 하였겠는가고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초기투자가 많단 말이지.》**라고 나직이 되이시며 자금이 많이 들더라도 실현하여야 한다고 그 대책까지도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마지막도관에 대한 해설이 끝났을 때는 시간이 퍼그나 흐른뒤였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일어설념을 않으시고 도판들을 다시 둘러보시며 다 좋다, 그중에서도 처음의 4개 도판내용이 제일 마음에 든다, 착상장에 들어와보기를 잘하였다, 오늘은 참판한 다기보다 배우는셈이다라고 겸허하게 말씀하신 후 이렇게 계속하시였다.

《다른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것들을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착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와서 많이 배웠는데 이렇게 좋은것들만 보여줄수 있으면 앞으로 더 자주 오겠습니다.》

이날 대학을 세계1류급대학의 체모에 맞게 더 잘 꾸릴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장군님께서는 로학자들과 공로있는 교원, 연구사들도 만나주시였다.

장군님께서 교정을 나서신지 근 반세기가 지난 때였지만 그이께서는 그 시절에 인연을 맺으신 로학자들을 대번에 알아보시며 그동안 앓지는 않았는가 묻기도 하시고 보내준 편지를 받았다고 정깊은 말씀도 해주시였다.

그렇게 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오늘 **김일성**종합대학 로학자들과 교육과학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교원, 학자들을 만난 기념으로 사진을 찍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겹쳐드는 영광속에 모두가 감격을 누르지 못하는데 장군님께서 불쑥 대학시절 배구선수였던 로학자의 이름을 부르며 물으시였다.

《지금도 배구를 합니까?》

지금도 청춘의 열정속에 살고있는가라는 의미가 담겨진 그 물으심에 로학자는 지금도 배구를 한다고 힘있게 대답올렸다.

언제든지 정신만은 로쇠하지 말고 청춘으로 살라는 그이의 속깊은 당부가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촬영이 끝난 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 나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로학자들과 교육과학사업에서 공로를 세운 교원, 학자들이 훌륭한 발명들을 많이 하였는데 다른 동무들과 후대들도 다 그렇게 하도록 잘 키워야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나는 김일성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앞으로도 사회주의위업의 계승완성을 위하여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갈 민족간부들과 과학기술인재들을 키워내는 성스러운 사업에서 계속 빛나는 위훈을 세워나가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어 대학수영관을 또다시 찾으신 그이께서는 우리 대학생들의 수영경기도 보아주시고 새로 설치한 조약대의 승강기도 살펴보시면서 더 완성하라고 다심한 정을 베푸시였다.

그날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포연을 헤치고 백송리에 자리잡고있던 우리 대학을 찾아주신지 꼭 58년이 되는 날이였다.

전쟁이 한창이였지만 복구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여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시던 그날의 수령님과 꼭같이 긴장한 정세였지만 대학생들속에 계시면서 조국의 미래를 축복해주시는 장군님의 모습은 우리모두에게 강성대국승리의 날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내가 이런 심정을 말씀드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늘의 현지지도가 의미깊은 현지지도인셈이라고 하시면서 **《적들의 책동이 아무리 집요하고 악랄하여도 우리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은 반드시 현실로 꽃펴날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더욱더 격해진 나는 이번에 대학전자도서관에 붙인 장군님의 친필명제를 좌우명으로 삼고 학생들을 선군혁명의 골간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겠다고 결의다지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관리운영사업을 짜고들어 잘해야겠다고, 이번에 당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꾸리고 내세우려 하신 수령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하시면서 절절히 당부하시였다.

《나는 대학총장동무가 대학관리운영사업을 잘하여 수령님의 유훈과 나의 의도대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1류급대학으로 높이 올려세우리라고 믿습니다.》

하늘같은 믿음이 나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며 전자도서관에 새겨진 장군님의 친필명제가 또다시 떠올랐다.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

이것은 백년이 흐르고 천년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우리 **김일성**종합대학의 고귀한 넋이며 어버이수령님을 끝까지 모시고 따르려는 조선민족의 영원한 좌우명이다.

이 고귀한 넋을 제일먼저 가슴에 새겨안은 우리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지금 교육과학사업과 교육환경을 더 훌륭히 갖추기 위한 사업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오기 위해 분발하여 일떠섰다.

이제 수령님의 조국—**김일성**조선의 이름을 세계에 떨치는 성스러운 투쟁의 맨 앞장에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1류급대학으로 높이 올라선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직원, 학생들, 졸업생들이 긍지높이 떳떳이 서게 될것이다.

주체100(2011)년 5월

송도원역—세길역사이 철길 개통, 송도원역 준공

【원산 9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솟아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야영생들을 위한 새 철길과 철도역이 훌륭히 건설되였다.

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송도원역—세길역사이 새 철길과 송도원역은 전국각지에서 이곳 야영소로 오가는 소년단원들이 마음껏 리용하게 될 사랑의 전용철길, 전용역이다.

철길개통 및 역준공식이 23일에 진행되였다.

관계부문 일군들,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 군인건설자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전길수철도상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속에 새 철길과 역사가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야영생들을 위한 또 하나의 현대적인 대중봉사기지가 마련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년단원들이 야영소로 오갈 때 자그마한 불편도 있을세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가까이에 철도역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고 직통렬차도 마련해주시였다.

지난 7월 완공단계에 이른 송도원역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야영생들의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개성이 살아나게 역사를 잘 꾸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언제나 결사관철의 영웅적위훈으로 받들어온 군인건설자들은 송도원역을 동해명승 송도원의 자연풍치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주변환경에 잘 어울리면서도 현대적미감이 나게 건설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렸다.

군인건설자들은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짧은 기간에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1만여㎡의 부지면적을 가진 역사를 번듯하게 일떠세웠으며 역구내와 주변공사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꼈다.

철도성에서는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를 우선적으로 지체없이 보장하고 립체전, 전격전의 방법으로 수많은 토량운반과 철길로반형성, 철길늘이기공사를 다그쳤으며 콩크리트침목과 철길고착품생산을 짜고들었다.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일념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은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철길강도를 높이고 철도전기화공사를 제기일에 질적으로 끝냈다.

강원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랑의 전용렬차를 타고 기쁨에 넘쳐있을 아이들의 모습과 더불어 더욱 밝아질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을 안고 건설공사에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연설자는 새 철길과 역사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시며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고귀한 결정체이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이 낳은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철도운수부문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듦으로써 사랑의 기적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원산철도분국 일군들과 송도원역 종업원들은 철길과 역사를 깨끗이 관리하며 야영생들에 대한 안내봉사를 잘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인민과 새 세대들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주는 당의 령도를 높은 철도수송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날 기쁨에 넘친 참가자들의 환영속에 첫 렬차가 사랑의 기적소리를 울리며 평양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우리 축구발전의 밝은 래일을 보여준 승리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

2014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거둔 성과를 두고

백두의 공격정신과 금메달

우리 나라 선수들이 2014년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에서 단연 우승한 소식이 전해진 그때로부터 자랑스러운 승리자들을 맞이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 어디서나 크나큰 격동과 기쁨으로 설레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수들의 사상정신상태와 투지, 민첩성과 기술은 체육경기의 성과를 결정합니다.》

2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아시아축구련맹 16살미만 선수권대회는 아시아의 매개 나라와 지역의 축구발전의 미래를 가늠해볼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

우리 선수들은 이번에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더욱 창창한 앞날을 펼쳐가는 나라의 축구발전 면모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선수권대회전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필승》이라는 두 글자면 된다.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쿠웨이트, 네팔팀들을 보기 좋게 물리친 조별련맹전에서도 그러했지만 우리 선수들의 그 무비의 정신력은 이란팀과의 준준결승경기 11m차기에서도 순간도 드팀이 없었다.

11m차기시작에 앞서 모여온 선수들에게 책임감독 연광무동무를 비롯한 감독들이 한 말은 길지 않았다.

—우리는 동무들을 믿는다.

믿음, 이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있었던가. 그것은 다름아닌 나이는 어리고 국제경기경험은 부족하지만 우리 선수들모두가 당의 품속에서 다지고다진 백두의 담력과 배짱에 대한 확신이였다.

믿음은 헛되지 않았다.

우리 팀의 먼저차기로 진행된 11m차기에서 우리 선수들이 4차례에 걸쳐 련이어 꼴을 넣은 반면에 이란선수들은 두차례나 공을 그물밖으로 날려보냈다. 하여 우리 팀은 대회우승후보팀으로 지목되였던 이란팀을 물리치고 준결승경기에 올라갔으며 동시에 아시아를 대표하여 2015년의 국제축구련맹 17살미만 월드컵경기대회에 참가할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다.

우리 팀과 오스트랄리아팀과의 준결승경기도 11m차기로 승부가 났다. 이때에도 우리 선수들의 필승의 신심은 백두의 산악처럼 변함이 없었다. 11m차기에 나선 네명의 우리 선수들은 매번 득점을 멋들어지게 성공시키였으며 여기에 문지기 리철성선수가 상대팀의 공을 두차례나 막아냄으로써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남조선팀과의 결승경기를 앞두고 우리 감독, 선수들의 심장은 더욱 세차게 끓어올랐다.

—우리 힘과 지혜, 넋을 다 바쳐 공화국의 체육인들의 정신력이 어떤것인지, 선군조국의 체육인들의 기질이 어떤것인지 승리로 긍지높이 새기리라. 어머니조국이여, 우리를 믿어달라.

재능의 싹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축구기술발전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치도록 크나큰 믿음을 거듭 베풀어준 당의 은정에 기어이 금메달로 보답하려는 한결같은 신념과 의지는 결승경기장에 격동적인 화폭들을 펼쳐놓았다.

비록 먼저 한점을 실점당한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필승의 신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으며 불같은 공격을 들이대는 가운데 9번 한광성선수가 귀중한 동점꼴을, 10번 최성혁선수가 결정적인 또 한꼴을 통쾌하게 성공시켰다. 두점이나 실점당한 남조선팀은 키큰 선수까지 넣어가며 어떻게 하나 이겨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이에 대처하여 더욱 철통같이 다져진 우리 팀의 방어진을 허물지 못하였다.

하여 우리 선수들은 2:1로 남조선팀을 타승하고 우승의 시상대에 높이 올라 영예의 금메달과 더불어 람홍색공화국기를 자랑차게 빛내이였다.

항일의 혁명선렬들의 넋이 어린 고귀한 투쟁정신을 줄기차게 이어가며 승리를 떨칠줄 아는 새 세대 체육인들이야말로 우리 조국의 자랑이다.

이런 확고한 사상정신적우월성은 앞으로 더욱 놀라운 육체기술적우월성을 낳을것이며 새로운 승리의 개가를 높이 울릴것이다.

미더운 축구선수들이여,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라. 당이 안겨준 백두의 공격정신, 무비의 정신력을 활화산같이 터치며 체육강국건설의 승리를 위한 진격의 돌파구를 더욱 자랑차게 열어나가라!

글 본사기자 오철룡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대를 이어 전해지는 사랑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이 나날이 현실로 꽃펴나고있는 오늘 얼마나 많은 체육인들이 우승의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있는가.

우리 나라 축구력사에 또 하나의 승리의 기록을 새겨놓은 미더운 선수들과 함께 오늘은 나도 그 대오에 서게 되였다.

우리 가정은 아버지때부터 절세위인들의 각별한 믿음과 사랑을 많이 받아안은 가정이다.

당에서는 나의 아버지를 재능있는 축구선수로, 축구감독으로 키워주었다. 그 품속에서 아버지는 체육인으로서의 긍지높은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었다.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우리 가정에 흘러든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사랑은 나를 4.25체육단 축구선수로, 소백수체육단 감독으로, 오늘은 청소년종합팀 책임감독으로 내세워주었다.

정말이지 우리 가정의 모든 행복과 영예, 아버지와 내가 받아안은 체육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랑은 절세위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떠나서 순간도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나는 한생을 두고도 다 갚지 못할 그 사랑, 그 믿음에 아버지의 몫까지 합쳐 보답할 일념으로 선수들과 함께 훈련장을 달리며 땀을 흘려왔다.

나뿐이 아닌 우리 선수들 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오직 하나의 생각을 안고 달렸기에 오늘의 자랑찬 경기성과를 안아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가 거둔 경기성과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충정이 합쳐져 이룩된것이다.

우리 가정에 베풀어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은정, 끊임없이 이어지는 절세위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자신의 온넋과 열정을 다 바쳐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는데 이바지해나가겠다.

책임감독 연광무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우승의 시상대에 오르니 저절로 눈물이 났다.

그것은 우리들의 경기결과를 기다리고계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게 되였다는 커다란 기쁨과 함께 더욱 사무쳐오는 그리움에서였다.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체육인들의 경기를 지도해주시고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렸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끝없이 이어지고 더해만가는 그 사랑과 믿음은 나라의 체육발전을 떠메고나갈 역군으로 준비해가고있는 나의 가슴속에도 뜨겁게 흘러들었다.

하기에 이번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훈련의 나날을 보낼때에도, 대회에 참가한 전기간에도 나의 머리속에서는 언제나 이런 생각이 떠날줄 몰랐다.

(기어이 승리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 기쁨의 보고를 드리리라.)

나는 오직 이 하나의 생각을 안고 달렸고 불타는 이 일념은 나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이 안겨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있었기에 나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평시에 련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네개의 꼴을 넣을수 있었다. 그리고 결승경기에서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 이번 선수권대회의 우승에 이바지할수 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이 하나의 생각을 안고 세계패권으로 선군조국의 영예를 더욱 만방에 떨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릴것이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오직 승리의 보고만을 드리겠다.

축구선수 한광성

힘이 솟는다, 더 높이 비약하여 선군조선의 본때를 보이자

평양국제축구학교 교원 리유일은 《정말 장하다. 우리 선수들이 남조선팀을 타승하고 우승을 쟁취한것도 기쁜 일이지만 남자축구의 전도가 양양하다는것이 우리모두의 가슴을 더욱 설레이게 한다. 우리 선수들이 득점하는 장면들을 보니 장거리련락과 멈추기동작이 완벽하였고 꼴문구석으로 강하게 차넣는 대담한 용단이 참으로 마음에 들었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의 경기라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고 두번째 득점을 할 때에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만세를 불렀다. 온 나라에 타번지는 축구열풍, 체육열풍이 안아온 귀중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나는 조선축구의 미래를 대표할수 있고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안아올 전도유망한 선수후비육성에 모든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바쳐 평양국제축구학교 교단에 세워준 당의 믿음에 꼭 보답하겠다.》고 말하였다.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부원 박성건은 한달음에 달려가 우리의 장한 축구선수들을 얼싸안아주고싶다고 하면서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나는 축구를 남달리 사랑하지만 이번 선수권대회에 대해서는 솔직히 여느때처럼 매 경기마다 빼놓지 않고 관심을 돌리지는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떠받들려 일떠서는 위성과학자거리건설이 마감단계에 이른 때여서 여기 은정과학지구의 사람들 누구나가 그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다.

그런데 바로 며칠전 텔레비죤으로 이번 선수권대회 결승경기소식이 나오는것이 아닌가. 그것도 남조선팀과의 경기인데 전반전에서 한꼴을 먼저 실점당했다는 방송원의 목소리에 저도모르게 긴장해졌다. 그러나 후반전에 들어와 우리 선수들이 넣는 첫번째 득점장면을 보는 순간 저도모르게 무릎을 탁 쳤다. 그야말로 우리 축구애호가들의 말대로 하면 〈교과서〉대로 들어가는 통쾌하고 멋진 시원한 첫꼴이였던것이다.

드디여 남조선팀을 2:1로 타승하는 장면에서는 가슴이 찡하고 눈물까지 났다.

요즘은 정말 매일이다싶이 우리 체육선수들의 승전소식을 들으니 하는 일마다 성수가 더 난다.

사랑하는 우리의 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고있는 우리 체육인들처럼 조국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있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겠다.》

금강지도국 처장 김철성은 《우리의 축구선수들이 나이가 어리다는것이 더욱 기쁘다.

사실 이번 선수권대회 조별련맹전때부터 대전표를 써놓고 표시해가며 나름으로 승패를 평가하면서 선수들과 함께 달리는 심정으로 한차례한차례의 경기결과를 기다리군 하였지만 솔직히 녀자축구라면 몰라도 남자축구경기여서 1등까지는 생각 못하였다.

그런데 결승경기에서 남조선팀을 2:1로 타승하고 우승을 했으니 그때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더우기 기쁜것은 우리 선수들이 전반전에 한꼴을 실점당한 상태에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기어이 이긴것이다.

이렇게 아짜아짜한 상태에서 역전환하여 이기는 경기를 우리 축구애호가들은 제일 보기 좋아하는데 축구경기의 극치라고까지 말하군 한다. 이런 훌륭한 경기장면을 우리의 미더운 새 세대 축구선수들이 펼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에 세차게 일으켜주신 축구열풍, 체육열풍과 더불어 우리 축구가 세계를 누를 그날을 환희롭게 그려보게 된다.》고 말하였다.

평양기계대학 기계생산공학부 학생 박현우는 이번 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이 조선축구의 밝은 래일을 확신케 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학부축구선수이다. 선수라면 누구나 우승을 꿈꾼다. 학부별경기에서도 우승을 하면 그 기쁨이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우리 학부의 학생들은 이번 선수권대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은근히 가슴을 조이면서도 우리 선수들이 꼭 승리할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미더운 선수들이 남조선팀과의 결승경기에서 먼저 실점을 당했지만 자신만만하게 싸워 두꼴이나 넣어 보기 좋게 타승하였으니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다.

득점을 한 9번 한광성선수와 10번 최성혁선수를 비롯한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기어이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여 어머니조국에 승리의 보고를 드린 축구선수들처럼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이는 훌륭한 인재로 준비해나가겠다.》

대동강구역 릉라고급중학교 학생 조학명은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터치였다.

《우리 선수들이 우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였을 때 나와 동무들의 가슴가슴은 기쁨과 감격으로 쿵쿵 뛰였다. 특히 선수들이 통쾌하게 꼴을 넣는 장면들을 보면서 마치도 내가 경기장에 나선듯 어깨가 으쓱해졌다.

나도 축구선수라는 희열이 가슴에 꽉 차올랐다. 우리 학교 축구반도 전국중학교축구반 축구경기대회에서 3련승을 기록한 자랑을 안고있다. 선생님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우승의 영예를 지닌것은 훈련에서 많은 땀을 흘렸기때문이며 선수들모두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기들의 경기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서 경기장을 달렸기 때문이라고, 동무들도 앞으로 경기들마다에서 우승의 영예를 떨치는 훌륭한 선수들로 자라나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의 당부를 언제나 잊지 않고 나와 동무들은 드넓은 운동장에서 재능의 나래를 더 활짝 펼치며 우리의 공화국기발을 온 세상에 휘날리는 축구명수들로 준비해가겠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 참가자들 꽃바구니 진정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23일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고귀한 혁명생애의 전기간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들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소식

우리 나라 선수들 여러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 쟁취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고있는 우리 나라 선수들이 련일 성과를 거두고있다.

23일 남자력기 77㎏급경기에 출전한 김광성선수는 종합 363㎏을 들어올려 2위를 하고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조복향선수는 녀자력기 63㎏급경기에서 동메달을 받았다.

또한 우리 선수들은 녀자단체유술경기와 날치기참호대사격경기에서 각각 3위를 하여 동메달을 쟁취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성원들

백두산지구 참관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성원들이 21일부터 23일까지 백두산지구를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삼지연대기념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과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모신 백두산밀영의 모자이크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항일대전의 준엄한 시기에 탄생하시여 빨찌산의 위대한 아들로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고향집에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고향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던 사령부귀틀집 등을 돌아보았다.

고향집방문에 앞서 삼지연대기념비를 돌아본 그들은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여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금치 못하였다.

손님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답사하였다. 백두산에 오른 그들은 천지를 성벽처럼 에워싸고 장쾌하게 솟아있는 령봉들을 부감하였다. 손님들은 또한 백두관을 참관하고 리명수폭포 등을 돌아보았으며 량강도인민위원회에서 마련한 연회에 참가하였다.

총련 조선대학교 교원에게

박사학위 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사학위를 서정인 총련 조선대학교 교원에게 수여하는 의식이 2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여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위원장인 김용진내각부총리, 강춘금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서기장, 관계부문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지침으로 하여 재일조선아동문학의 발전과정과 사상예술적성과들을 전면적으로 종합체계화함으로써 재일조선문학건설에 크게 기여한 서정인교원에게 문학박사학위가 수여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 개막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가 개막되였다.

《조선의 언어학, 문학, 력사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수십건의 가치있는 학술론문들이 발표되게 된다.

토론회개막식이 23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개막식에는 태형철 총장 겸 고등교육상을 비롯한 **김일성**종합대학 일군,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하였다.

몽골국립종합대학대표단, 인민대학대표단을 비롯한 중국의 여러 대학대표단, 대표들, 중국연변교육출판사대표단, 프랑스 빠리제7종합대학 대표, 로씨야의 조선어전문가들, 도이췰란드 베를린자유종합대학 대표, 총련 조선대학교대표단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개막식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학장 신영호가 개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나라와 민족의 언어와 문학유산, 력사에는 그 나라 민족의 지향과 요구, 넋이 깃들어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참가자들이 조선의 말과 글, 문학유산의 우수성과 유구한 력사에 대한 연구에서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와 경험, 의견들을 폭넓게 교환하게 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선진문명국을 지향해나가는 조선에 대한 인식을 보다 깊이있게 하는 이번 토론회가 세계 여러 나라 학자들과의 친선의 뉴대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두터이 하는 의의있는 회합으로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어 축하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의 권위있는 교육자, 과학자들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선의 언어학과 문학유산, 력사학과 관련된 국제학술토론회를 진행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번 토론회가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날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국제학술토론회 참가자들을 위하여 옥류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

분과별토론회 진행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 분과별토론회가 23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있었다.

토론회는 언어학분과, 문학분과, 력사학분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 로씨야의 조선어전문가들, 총련 조선대학교대표단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외국어로서의 조선어습득에서 나타나는 문법적오유문장의 류형》(**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 교수박사 박재호),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조선어표현수단에 대한 문체론적고찰》(**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 교수 박사 김범주), 《민족수난기 진보적력사소설의 발전과 다부작장편력사소설 〈림꺽정〉》(**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연구사 후보원사 교수 박사 은종섭), 《류린석이 창작한 반침략애국주제 시문학의 사상정서적특징》(**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강좌장 박사 부교수 리동윤), 《로신과 현진건의 동명소설 〈고향〉비교연구》(중국 베이징제2외국어대학 교수 김영옥), 《김소월시가의 민족적특성고찰》(중국 청도대학 교수 리명학), 《서산성의 축조년대와 고구려 평양성과의 호상관계에 대하여》(**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강좌장 박사 리영식), 《고려의 서경천도시도에 대한 고찰》(**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교원 윤신영), 《무녕왕릉을 통해서 본 백제의 문화교류》(중국연변대학 교수 전영), 《고려시대 금석학에 대한 연구방법론》(프랑스 빠리제7종합대학 교수 얀니크 브류네똥) 등의 론문들에서 토론자들은 학술적문제들을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토론회는 계속된다.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의

친선유희오락경기 진행

제14차 평양국제영화축전 참가자들의 친선유희오락경기가 23일 대성산에서 있었다.

경기장소는 다양한 주제의 영화들을 출품시켜 이번 축전의 성과적진행에 기여하고있는 참가자들로 흥성이고있었다.

홍팀과 백팀으로 나뉘여 벌어진 경기에서는 공받고달리기, 눈가리우고 공치기, 발목매고달리기 등의 종목들이 펼쳐졌다.

선수들이 기세를 올리며 승부를 겨룰 때마다 관람자들은 열렬한 응원으로 경기분위기를 돋구었다. 유희오락경기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진보적인 영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축전참가자들의 열의속에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가을걷이전투로 들끓는 협동벌

경쟁열풍에서 찾은 목표수행의 기본열쇠

문덕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승리의 신심드높이 뜻깊은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할 불타는 열의안고 문덕군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가을걷이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강냉이가을걷이를 5일동안에 끝낸데 이어 며칠동안에 수천정보의 벼가을을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이곳 일군들이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가을걷이전투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든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사를 잘 지어 당과 국가가 제시한 알곡생산과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올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벼가을은 10일동안에, 낟알털기는 20일동안에 전부 끝낼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사실 전투목표를 지난 시기보다 더 높이 세우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까지만 하여도 일군들은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한것은 지난 시기에 비해 올해의 가을걷이조건이 더 좋아진것도 없고 로력이 보충된것도 없기때문이였다. 있다면 수백대의 이동식탈곡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놓았을뿐이였다.

하지만 이들은 올해에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새겨보며 기어이 계획된 날자에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전부 끝낼 결의를 가다듬었다.

결심하고 달라붙은 사람에게는 좋은 방도가 나지기마련이다.

일군들은 발이 닳도록 뛰면서 실농군들도 만나보며 그 방도를 모색하였다. 그들은 지난해농사결속을 제때에 한 단위들의 경험을 분석해보는 과정에 사회주의증산경쟁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였다.

—당의 요구대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데 목표수행의 기본열쇠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이 사업에 힘을 넣자.

이렇게 결심한 일군들은 농근맹조직들에서 경쟁조직을 잘 짜고들도록 떠밀어주었다. 곧 경쟁요강이 발표되고 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대책이 세워졌다.

여기서 일군들이 잘한것은 시범단위를 바로 정하고 모든 단위들에서 따라앞서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증산경쟁이 실질적으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를 힘있게 추동하도록 한것이다.

시범단위를 정하는 문제에서 일군들은 사색을 깊이하였다. 그것은 농사조건이 불리한 단위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지난 시기 경쟁이 시작될 때에는 우승을 하리라 결심을 했다가도 실적에서 어지간한 차이가 생기면 손맥을 놓고 나앉군 하였던것이다.

사회주의증산경쟁은 그 본질자체가 집단적혁신운동이다. 그런것만큼 이 사업은 단순히 앞서나가는 단위를 평가하고 내세우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모든 단위가 다 혁신을 창조하도록 하는데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시범단위를 잘 정하는 문제는 사회주의증산경쟁이 가을걷이전투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리였고 토론이 거듭되였다. 여러가지 안들이 제기되는 속에 결정된것은 지난 시기 농사에서 중간순위에 있었던 만흥협동농장을 시범단위로 정하고 그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자체의 힘으로 가을걷이전투를 성과적으로 벌리도록 하자는것이였다. 농장들에서도 중간순위에 있었던 작업반, 분조를 시범단위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지난 시기 앞서나갔던 단위들을 더 분발시키며 뒤떨어졌던 농장, 작업반, 분조들도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고 이번 가을걷이전투에 달라붙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가을걷이전투가 시작되자 이것이 그대로 은을 냈다. 만흥협동농장에서 3일동안에 강냉이가을걷이를 전부 끝내자 온 군이 부글부글 끓었다. 모든 농장들이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높은 열의를 가지고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작업반, 분조들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타올랐다.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받아들인데 맞게 사회주의증산경쟁을 대중의 열의를 더욱 높일수 있게 조직한것도 본받을만 한 점이다.

올해에 농장들에서는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정에 맞게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이 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은을 내고있었다. 그러므로 이를 중시하는 원칙에서 경쟁을 조직하여야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일군들은 농장, 작업반, 분조는 물론 농장원호상간 사회주의증산경쟁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그 방도를 찾아 실천해나갔다. 이를 위해 한평에서 나오는 알곡생산량과 하루벼가을정량, 그에 따르는 로력일평가점수를 농장원들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작업실적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것과 함께 분조계획수행을 놓고 농장원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정확히 하도록 하였다. 특히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한 점을 중시함으로써 농장원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끝내고 남을 도와주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게 하였다. 세분화된 사회주의증산경쟁요강에 따라 경쟁이 벌어지게 되니 농장원들의 승벽심은 현저히 높아졌을뿐아니라 한평한평의 가을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해나갔다.

일군들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서 나서는 기술실무적인 대책들도 철저히 세워 사회주의증산경쟁의 우월성이 더 높이 발휘되도록 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렸다.

그중의 하나가 벼단의 크기를 종전에 비하여 작게 하는것이였다. 벼를 벤 다음 논바닥에 펴놓고 일정한 기간 말리웠다가 직경이 15㎝정도를 넘지 않게 묶도록 하였다. 지난 시기의 교훈을 보면 벼단을 크게 하면 잘 마르지 않을뿐아니라 다루기도 불편하였다. 벼단을 작게 하니 벼를 베면서 그루를 가쯘하게 맞출수 있었고 싣고부리기가 편리하였으며 그대로 탈곡기에 먹이니 불필요한 공정이 없어져 낟알털기속도를 높일수 있었다.

이동식탈곡기와 종합탈곡기를 적절히 배합하는 문제도 중시하였다. 이를 위해 일군들은 작업반에서 거리가 먼 포전들에서는 이동식탈곡기를, 가까운 포전들에서는 종합탈곡기를 리용하여 낟알털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것 역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의 실적을 높이게 함으로써 농장원들의 경쟁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이들의 경험은 아무리 높은 목표라고 해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킨다면 얼마든지 점령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첫걸음을 잘 떼야 결과가 좋다

곽산군 초장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그것이 실지 은을 낼수 있게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서 기본은 낟알허실을 없애는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곽산군 초장협동농장 일군들은 포전에서 낟알털기를 하기 위한 문제를 중시하였다. 그것은 포전에서 벤 벼를 운반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낟알을 허실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자면 벼가을을 일정계획대로 내밀어 포전에서 낟알털기를 제때에 해야 하였다.

일군들은 이를 위해 논벼생육상태와 포전조건, 벼베기준비정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에 한가지 문제에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그것은 소농기구준비와 그 리용문제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생육후반기에 영양액주기를 여러차례 진행하였다. 결과 벼알의 여문률이 더욱 높아지였다. 그러다보니 벼대들이 가을철에도 잘 마르지 않고 지난해보다 더 단단해졌던것이다. 때문에 낫준비를 실속있게 하지 않으면 벼베기속도를 높이는데 일정한 영향을 줄수 있었다.

만약 벼가을기일이 늦어지면 그만큼 많은 벼알이 포전에서 허실될수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일군들은 여러가지 실속있는 대책들을 세웠다. 먼저 모든 농장원들이 낫을 2~3개씩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분조마다 점심때와 작업후에 낫을 갈아놓는 농장원을 한명씩 선발하도록 하였다.

첫걸음을 잘 떼니 결과는 좋았다. 농장원들이 작업도중에 낫을 가는 현상이 없어지자 높이 세운 벼베기일정계획은 넘쳐 수행되였던것이다.

일군들은 찾은 교훈을 귀중히 여기고 수확한 벼를 잘 말리우는 문제도 중시하였다. 일군들은 포전에서 낟알털기를 해야 하는 조건에 맞게 마른논에서는 개인 날씨가 계속되는 경우 벼를 베여 2~3일정도 말리우고 다시 뒤집어 2~3일정도 말리운 다음 단으로 묶도록 하였다. 논판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벼를 묶어서 세워놓고 말리우며 특히 벼단속에 비물이 스며들거나 벼단이 논에 넘어져 벼알이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농장원들이 포전조건에 맞게 벼가을을 질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포전에서 낟알털기를 와닥닥 끝낼수 있도록 예견성있게 작전한것도 본받을만 한것이다.

포전에서의 낟알털기능률을 높이자면 이동식탈곡기의 대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그 가동률을 높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그런데 타산해보니 이동식탈곡기들만 가지고서는 낟알털기를 제기일내에 보장할수 없었다.

론의가 거듭되였다. 그 과정에 이미 있던 소형탈곡기들을 잘 수리정비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안이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때 일군들은 서두르지 않고 소형탈곡기의 능력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았다. 그 과정에 조금만 개조하면 얼마든지 소형탈곡기의 능력도 높일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였다.

신심을 가진 일군들이 기계화작업반, 수리분조의 오랜 기능공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치였다. 그리고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분조마다 이동식탈곡기들과 함께 소형탈곡기들을 보장해줄수 있게 되였다.

이들처럼 혁신적인 안목으로 현실을 대하고 앞질러가며 작전하여 첫걸음을 잘 떼면 벼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낼수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정성일

애써 가꾼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든다.
—황주군 룡천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애국의 열정넘치는 하루

안악군의 협동농장들에서

첫새벽의 주인들

동트는 이른새벽 엄곳협동농장 포전에 나섰던 안악군당위원회 한 일군은 제9작업반 포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새벽이슬에 옷자락을 적시며 열심히 낫질을 하는 관리위원장 오광남동무의 모습이 멀리서도 한눈에 안겨왔던것이다.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 온 한해 새벽별을 이고 달려온 그가 이 가을에도 남먼저 일손을 잡은 모습이 무척 돋보였다.

낫을 움켜쥔 손등으로 흐르는 땀을 씻으며 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리당비서 여순건동문 저보다 더 일찍 제5작업반 포전에 나갔습니다. 우리 일군들이 첫새벽의 주인이 되여야 온 농장이 들끓지 않겠습니까.》

군당일군의 가슴속에는 이런 첫새벽의 주인들,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칙하는 일군들이 있어 올해농사는 승리적으로 결속되리라는 확신이 차넘치였다.

《낫가는 일은 내가 맡겠네》

《오늘도 한바탕 베여보라구. 낫가는 일은 내가 맡겠네.》

신촌협동농장 제12작업반에서 실농군으로 소문났던 송봉만로인이 아침일찍 숫돌을 들고 나와 포전머리에 자리를 잡고앉으며 하는 말이였다.

가을걷이도중에 낫을 가느라고 농장원 한사람당 30분씩만 지체한다 해도 농장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로력이 랑비되겠는가. 낫을 전문적으로 갈아주는 사람을 따로 정해놓으면 그만큼 가을걷이를 앞당겨 끝낼수 있다는 농장일군들의 말을 제일먼저 지지하며 포전에 달려나온 그였다. 그만이 아니였다. 어제날 쌀로써 당을 받들 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투쟁해온 많은 실농군들이 스스로 숫돌을 들고 벌로 나왔다.

변함없는 충정을 바쳐가는 이들의 마음까지 합쳐져 농장의 벼가을걷이실적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

작아도 큰 낟알주머니

오국협동농장 제4작업반의 하루가을걷이가 끝난 저녁이였다. 자그마한 주머니를 옆구리에 차고 가을걷이한 포전과 이동식탈곡기주변을 돌아보는 작업반장 리기섭동무의 모습은 농장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다음날부터 작업반원들모두가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다니며 휴식시간과 점심식사시간을 리용하여 흘린 낟알을 주어모았다. 이렇게 작업반원들모두가 매일 수집하는 낟알은 적지 않은 량이였다.

애써 가꾼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나라의 쌀독에 채워넣으려는 참된 실농군들의 애국의 마음이 가득히 넘치는 낟알주머니였다.

그것은 비록 작아도 컸다. 그속에 담기는 낟알의 무게를 어찌 수량으로만 잴수 있으랴.

본사기자 장은영

밤중에 울린 발동소리

강냉이가을을 끝낸 포전들을 돌아보고 날이 어두워서야 사무실에 들어선 **항구구역 덕해협동농장** 일군은 작업반들에서의 하루작업실적을 따져보았다. 강냉이오사리벗기기실적도 높았다. 하지만 그는 만족할수 없었다. 날씨는 예측할수 없으므로 가을걷이를 적기에 해야 낟알허실을 없앨수 있기때문이였다.

그 방도를 모색하던 그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뜨락또르발동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사무실문을 나서기 바쁘게 발동소리가 들려오는쪽으로 다가가던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제3작업반 농장원들이 어둠속에서 전지불을 켜들고 뜨락또르적재함과 달구지들에 강냉이이삭을 싣고있는것이였다. 그가 어떻게 된 일인가 묻자 작업반초급일군이 최근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해져 벼가을적기가 앞당겨지고있다고 하는것이였다.

다음날 아침이였다. 제3작업반 포전에서 전날밤에 있은 감동깊은 사실이 모든 작업반들에 전해지자 농장원들의 일본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본사기자

포전에서 소형탈곡기를 리용

사리원시 정방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을과 운반, 탈곡을 깐지게 하여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잘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사리원시 정방협동농장에서 60여대의 소형탈곡기를 제작 및 개조하여 시작부터 실적을 올릴수 있게 하였다.

이곳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이 소형탈곡기는 무게가 30~40㎏밖에 안되며 수동으로뿐아니라 원동기를 리용하여 가동시킬수 있다고 한다. 원동기를 리용하는 경우 최고 소형탈곡기 3대까지 가동시킬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적은 량의 기름을 가지고도 많은 낟알을 털수 있다. 또한 정선까지 동시에 하게 되여 농장원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농장일군들은 지난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경험에 기초하여 올해에 소형탈곡기를 적극 받아들일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많은 소형탈곡기를 제작하고 개조하는 사업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 참호를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면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소형탈곡기생산을 힘있게 내밀었다. 기계화작업반, 수리분조의 농장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회전수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전동장치부분을 사슬형식으로 개조하여 낟알털기효률을 높일수 있게 설계하였다. 그들은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어려운 조건에서도 소형탈곡기를 훌륭히 제작하였다.

결과 농장의 모든 분조들에 두대이상의 소형탈곡기들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농장에서는 이 소형탈곡기들만 가지고 낟알털기를 60%이상 해제낄 목표밑에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병해충피해막이에 큰 힘을

락랑구역 룡호협동농장 남새제3작업반에서

당의 뜻을 받들고 락랑구역 룡호협동농장 남새제3작업반에서 병해충피해막이에 힘을 넣어 좋은 남새작황을 마련해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남새생산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작업반장 김용현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은 올해 남새생산에서 병해충피해막이문제를 중시하고 힘있게 내밀었다. 우선 배추성형모를 옮겨심을 때부터 관심을 돌렸다. 지난 시기 배추성형모를 옮겨심은 다음 모살이상태를 보면 일부 포전에서는 좋지 못하였다. 원인은 배추성형모뿌리가 병해충의 피해를 받았기때문이였다.

여기로부터 작업반원들은 배추성형모뿌리에 생길수 있는 병해충을 미리 잡는데 힘을 넣었다. 배추성형모판밑부분을 농약을 푼 물에 잠그었다가 옮겨심었다. 이것이 은을 냈다. 가물이 계속되는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모살이가 잘되였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남새밭 비배관리에서도 병해충피해막이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다.

작업반에서는 관리위원회의 지도밑에 구역자체로 생산하는 식물성농약을 받아들이였다. 이들은 분조들에서 책임성이 높은 농장원들을 선발하여 농약치기를 철저히 기술적요구대로 하도록 하였다. 특히 기술기능이 높은 10명의 농장원들이 한주일에 한번씩 집중적으로 농약을 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식물성농약의 우월성과 리용방법을 농장원들에게 하나하나 알기 쉽게 알려주어 그들이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작업반에서는 농약의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에도 힘을 넣었다. 농약의 종류에 따라 농약치기시간을 설정하고 병해충잡이를 진행하였다.

1분조의 농장원들이 농약치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면서 남새밭을 알뜰하게 가꾸고있다. 초급일군들은 분조들에서 이룩된 좋은 경험과 농장원들속에서 발휘된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널리 일반화하여 대중의 열의를 높여주고있다.

작업반원들은 수도시민들에게 더 많은 남새를 생산공급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열의를 안고 성실한 땀을 바치고있다.

본사기자 홍창혁

제12차 전국태권도기술혁신경기 진행

제12차 전국태권도기술혁신경기가 16일부터 23일까지 평성시에서 진행되였다.

태권도국가종합선수단과 조선체육대학, 중앙체육학원, 평양시, 각 도,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태권도선수단 등 15개 단체에서 선발된 200여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하였다.

경기는 1부류와 2부류로 나뉘여 맞서기, 틀, 특기, 위력, 호신경기의 종목으로 진행되였다.

선수들은 우리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널리 장려하고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평시에 련마해온 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이 종합 제1위를 쟁취하였으며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과 함경남도태권도선수단이 각각 제2위, 제3위를 하였다.

맞서기경기에서는 함경남도태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태권도선수단(녀자)이, 틀경기에서는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태권도선수단(녀자)이, 특기경기에서는 평양시태권도선수단(녀자)이, 위력경기에서는 조선체육대학(남자), 강원도태권도선수단(녀자)이, 호신경기에서는 평안남도태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태권도선수단(녀자)이 각각 우승하였다.

한편 바둑단체전에서는 함경남도태권도선수단(남자), 평양시태권도선수단(녀자)이 높은 성적을 쟁취하였다.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들과 선수들에게 상장이 수여되였다.

일조우호녀성대표단 도착

야마무라 치즈에를 단장으로 하는 일조우호녀성대표단이 23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우리는 모두 한가정, 친형제

저는 영예군인의 안해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영예군인가정이라고 때없이 집에 찾아와 불편한것이 없는가 따뜻이 보살펴줄 때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습니다.

그 고마운 사람들속에는 함경남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아래 단위 한예일동무도 있습니다.

제가 그를 처음 알게 된것은 7년전이였습니다. 어느날 저녁 한 대학생이 집문을 두드리는것이였습니다. 낯선 그 청년이 한예일동무였습니다. 그날 그는 남편에게 여러가지 영양식품들을 안겨주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한다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이룬 후에는 의사인 안해와 함께 자주 저의 집에 찾아와 남편의 건강을 돌봐주었습니다.

한두해도 아닌 7년세월 그의 가정과 우리 가정은 한식솔처럼 지내고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였기에 우리는 모두다 한가정, 친형제로 살고있습니다.

함흥시 성천강구역 련지동 맹창심

몽골방문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 출발

몽골을 방문하기 위해 김을호 부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문제연구소대표단이 23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김광호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과 롬빈하쉬—에르데네 주조 몽골 림시대리대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외술을 끊임없이 혁신하며 열두해

동대원구역인민병원 내과 의사 렴은희동무

당의 보건정책을 높이 받들고 치료예방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 의료일군들가운데는 동대원구역인민병원 내과 의사 렴은희동무도 있다.

그는 급성 및 만성담낭염, 취장염환자들에 대한 치료와 담낭과 담도에 생긴 돌을 제거하는데 묘기를 가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의료일군들은 인민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져야 할뿐아니라 자질이 높아야 합니다.》

렴은희동무는 의료일군은 인간생명의 기사이며 의료봉사사업의 직접적담당자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을 늘 심장깊이 새겨안고 자기의 의술을 끊임없이 혁신하며 치료예방사업에 전심전력하고있다.

믿음과 보답

우리가 만나본 렴은희동무는 40대 중반기의 평범한 녀성이였다.

그가 추억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

렴은희동무의 아버지는 한생 혁명의 군복을 입고 군의부문에서 일한 보건일군이였다.

렴은희동무가 아버지로부터 소화기질병치료기술을 넘겨받기 시작한것은 신의주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박사원과정을 마친 후였다. 그때 아버지는 담낭염과 취장염치료를 위한 가온산소치료방법을 착상하고 림상실천에 받아들이기 위해 몹시 바빠하였다. 그 모습을 보며 렴은희동무는 아버지처럼 당의 인민보건정책을 충직하게 받드는 참된 보건일군으로 한생을 빛내일 결심을 굳히였다.

그러던 그의 가정에 크나큰 영광이 차례질줄 어찌 알았겠는가.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렴은희동무의 아버지인 렴병호동무의 치료예방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그 방법을 널리 도입일반화할수 있게 잘 도와줄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날 아버지는 물론 렴은희동무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베풀어주신 크나큰 믿음에 대를 이어 보답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그는 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제대된 아버지와 함께 소화기질병치료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피타게 노력하였다.

년로보장을 받은 후에도 아버지는 딸에게 자기 마음까지 합쳐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에 꼭 보답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였다. 렴은희동무는 아버지의 그 당부를 늘 잊지 않고 일하였다.

가정부인인 그에게 있어서 늘 모자라는것은 시간이였다. 환자치료로 눈코뜰 사이가 없어 더욱 그러하였다.

하지만 렴은희동무는 보답의 한마음을 안고 분초를 쪼개가며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였다. 그의 피타는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물려준 가온산소치료장치를 더욱 발전시킨 그는 독특한 방법으로 담낭염과 취장염치료를 위한 종합치료장치를 연구완성하였다.

그 나날 렴은희동무는 《닫긴 조종에 의한 소화기질병치료장치와 방법》, 《전자기파와 가온산소효과를 결합한 담석증치료장치》를 연구완성하고 치료기구를 제작도입하여 2개의 발명증서와 10여건의 새 기술등록증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의 림상치료성과를 학술적으로 론증한 론문을 집필하여 학위소유자가 되였다.

그는 자기가 연구완성한 종합치료장치를 리용하여 지난 기간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사랑과 헌신

렴은희동무는 늘 바쁘게 살았다. 많은 경우 환자치료를 새벽에 해야 하는것으로 하여 더욱 그러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그는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언제인가 소화기질병과 관련한 새 도서를 손에 쥔 그는 밤가는줄 모르고 책을 읽었다. 종소리를 듣고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다.

아침밥을 지으려다 말고 그는 서둘러 옷을 입으며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환자치료로 급히 병원에 나가요.》

그리고는 종주먹을 쥐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의 생활에서 이런 날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하지만 그에게서 병치료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병원문을 나선 환자들가운데는 렴은희동무의 그러한 헌신성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이 많지 못하였다.

몇해전 무더운 여름철 어느날이였다. 6시부터 10시까지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성과적으로 마치고 잠시 한숨 돌리려는데 급히 환자치료가 또 제기되였다.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환자치료에 없어서는 안될 산소가 떨어졌던것이다. 그달음으로 산소통을 실어온 그는 서둘러 환자치료에 달라붙었다. 그가 환자치료를 마쳤을 때는 퇴근시간이 퍽 지난 후였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가 아니라 어느 한 기업소를 찾아 떠났다. 다시는 산소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는 결심에서였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깊은 밤이였다.

하지만 렴은희동무는 다음날 새벽 환자치료를 위하여 병원으로 나갔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 환자들을 치료해주었다. 특별한 약을 쓰지 않고 진행하는 그 치료방법이 독특하였다.

그는 병원당조직의 지도와 함께 일하는 동무들의 방조를 받으며 의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환자들에 대한 치료효과는 더욱 높아졌다.

완쾌된 몸으로 병원문을 나서는 환자들이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마다 그는 기쁨에 넘쳐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건강하여 더 많은 일을 하기 바랍니다.》, 《오래오래 장수하십시오.》

진정 그 말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마련해준 어머니당을 실천적사업성과로 받들어가려는 그의 진심이 비껴있었다.

렴은희동무는 이렇게 12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살아왔고 보람찬 그 길에서 오늘도 참된 삶을 빛내여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상훈

미국의 남조선강점은 백해무익하다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 관한 회담이 진행되였다. 미국과 괴뢰군부의 호전광들은 여기에서 다음해로 예정된 남조선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20년이후로 연기할데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론의하였다. 미국이 연기리유로 내든 구실이라는것을 보면 우리의 《핵과 미싸일위협》이 증대되고있는데 남조선이 그에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는것이다.

우리의 《위협》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미루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우리를 걸고 미군을 남조선에 영원히 못박아두려는 교활하고 비렬한 술책이다.

미국은 남조선영구강점명분을 만들기 위해 억지를 쓰고있다.

지난 시기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랭전의 론리로 합리화해왔다. 말하자면 남조선에 미군을 주둔시키는것이 쏘련의 《남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것이였다. 이와 함께 우리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 남조선에 미군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소리도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주장의 구실은 이미 없어졌다.

이전 쏘련은 존재하지 않고 랭전은 종식되였으며 우리 주변나라들과 미국사이에는 전략적동반자관계가 수립되였다.

미국이 떠들어대는 우리의 《남침위협》설도 통하지 않게 되였다. 조선반도에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남으로부터의 북침위협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무기를 비롯한 숱한 무장장비들을 배치하고 우리에게 핵위협공갈을 가하고있으며 괴뢰들을 북침도발에로 내몰고있다. 세계가 이것을 인정하고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산생시키고있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며 북남사이의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미국내에서도 미군의 남조선주둔이 불필요하며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철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고있다.

현시점에서 미군이 더이상 남조선에 남아있을 명분이 없게 되였다.

미국이 조급성에 사로잡혀 남조선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 연기문제를 들고나오는것자체가 미군의 남조선주둔구실이 더는 없다는것을 스스로가 인정한것으로 된다.

미국은 엄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어떻게 해서나 우리를 걸고들어 남조선을 영구강점하려 하고있다. 그것이 군사적힘으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저들의 전략실현에 부합되는것이기때문이다.

침략적인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내세우고있는 미국은 조선반도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발판으로, 관건적지대로 보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를 틀어쥐는것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전략적우세를 차지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지배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를 위한 전환적국면을 마련하려 하고있다.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저들의 군사전략적우세를 보장하는데서 남조선강점 미군이 주도적역할을 할수 있다고 여기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남조선을 계속 타고앉으려 하고있다. 바로 이때문에 미국은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를 거들며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를 떠들고있는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위협의 가해자로 몰아붙이면서 미군의 남조선주둔의 명분을 세워보려는것은 그야말로 남의 집에 뛰여든 강도가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드는 식의 파렴치한짓이 아닐수 없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내들고 남조선을 영구강점하며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고 대륙으로 진출하려 하고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에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를 놓고 론의를 진행한것과 관련하여 주변의 안보정책 및 군사전문가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북조선위협》설을 걸고 벌리는 미국의 음모는 결국 중국과 로씨야를 제압하기 위한 군사전략의 산물이라고 규탄하면서 남조선주둔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파괴자이며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근원이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

미국은 타산을 잘못하고있다. 남을 희생시켜 제 리속을 챙기려는 미국의 강도적수법은 오늘과 같은 밝은 세상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더우기 우리의 《위협》을 떠들면서 불순한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그야말로 망상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그 어떠한 시도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며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가려는 우리의 원칙적립장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미적개심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한번은 미국과 맞서싸워야 하며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각오와 의지이다. 만일 미국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에 남조선강점 미군은 뼈도 추리지 못할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남조선강점은 백해무익하다.

미국은 유사시 남조선강점 미군전멸이라는 치욕을 당하기 전에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침략무력을 철수시켜야 한다. 이것은 미국자체를 위해서도 좋을것이다.

리 학 남

세계가 우러르는 사회주의보루

세계민주청년련맹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진행

세계민주청년련맹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가 5일과 6일 네팔의 까뜨만두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세계민주청년련맹 위원장과 우리 나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나라들의 청년조직대표단 및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지난 시기의 사업정형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 토론자들은 날로 악화되는 조선반도정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며 조선반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련대성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세계민주청년련맹 부위원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조선을 온 세계가 우러르는 사회주의보루로 일떠세우시고 강성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으신 걸출한 수령들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서거 3돐을 맞으며 세계적판도에서 추모행사를 의의있게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세계민주청년련맹 전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청년운동의 걸출한 령도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하나는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힘을 넣으신것이다. 여러 나라들의 청년운동실태를 놓고볼 때 청년문제를 홀시하면 혁명의 전취물도, 민족의 장래운명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조선로동당이 시종일관 청년사업을 중시하고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선차적의의를 부여하여왔기에 조선의 사회주의는 굳건하다.

네팔청년련맹 위원장과 총서기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도전과 책동을 과감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창시하시고 계승발전시키신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빛나는 전통이 있기에 조선인민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길로 꿋꿋이 나아가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련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하였다.

방글라데슈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해마다 벌리고있는 북침전쟁연습은 사회주의조선을 기어이 압살하기 위한 야망의 발현이라고 폭로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 공명정대한 제안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세계민주청년련맹 성명이 채택되였다.

성명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당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위험천만한 전쟁책동을 준렬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분별하고 침략적인 전쟁책동을 당장 중지하며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전쟁장비들을 즉시 철수할것을 촉구한다.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책동과 반통일적인 행위들을 전면중지하고 북남공동선언에 기초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길로 나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단호하고 실제적인 대응행동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존엄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건설하려는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정의의 위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성명은 끝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도발책동을 단죄하며 자주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청년들의 투쟁에 적극 합세하리라는 확신을 표시하였다.

미군철수를 강력히 주장

남아프리카정계인사 담화 발표

남아프리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회 비서 보나켈레 마주바가 미군이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때로부터 69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1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1945년 9월 8일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함으로써 조선민족의 분렬의 력사, 치욕의 력사가 시작되였다.

미제는 조선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인민의 자주적발전에 대한 지향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은 용납 못할 행위이다.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면서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적범죄행위이다.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을 평화와 안전을 위한 그 무슨 《억제력》으로, 남조선인민의 《보호자》로 떠들어대고있지만 그것은 미군이 남조선에서 군림해온 69년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유린하면서 온갖 만행을 일삼는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으며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주장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불러오는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한다.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미국신문의 모략보도 배격

뛰르끼예대통령 레쎄프 타이프 에르도간이 17일 한 모임에서 미국신문의 모략보도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에 뛰르끼예를 테로분자들을 모집하는 원천지의 하나로 묘사하는 기사와 함께 대통령과 수상의 사진이 게재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비렬한 행위로 락인규탄하였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뛰르끼예정부의 립장을 유엔총회에 참가하는 계기에 명백히 밝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란핵문제의 평화적해결 주장

뽈럭불가담운동이 18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란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주장하였다.

성명은 이란의 핵문제가 외교와 대화를 통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모든 운동성원국들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럽동맹의 내정간섭 단죄

에짚트외무성이 16일 성명을 발표하여 유럽동맹의 내정간섭을 배격하였다. 최근 유럽동맹이 에짚트의 《인권문제》를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을 자기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행위로 락인단죄하였다. 이러한 처사는 인권에 대한 서방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것으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렬강들의 이중기준 배격

아르헨띠나와 에짚트의 외무상들이 14일 회담에서 렬강들의 이중기준을 배격하였다.

그들은 날로 로골화되는 렬강들의 이중기준책동을 비난하고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에서 호상협조를 계속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원유탐사 추진

케니아에서 원유탐사를 적극 추진하고있다. 최근에만도 로키챠르지역에서 4개의 원유매장지가 새로 발견되였으며 이로써 탐사확보된 원유매장량은 6억bbl로 늘어났다고 한다.

19일 정부는 앞으로 계획된 원유탐사를 다그치면 그 원유매장량이 10억bbl을 릉가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전력소비제한조치

유럽나라들에서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한 사업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최근 유럽동맹은 전력소비가 많은 가정용전기제품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사용금지조치를 취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목록에는 건발기와 빵굽는기계, 전기주전자를 비롯한 30여종의 전기제품이 올라있다.

유럽동맹안의 회사들은 이미 9월 1일부터 전력소비량이 1 600W이상인 흡진기를 생산하거나 수입할수 없게 되였다.

동맹은 앞으로 아직까지 목록에 오르지 않은 소형전기제품들에도 주목을 돌릴것이라고 한다.

반범죄투쟁 강화

먄마에서 범죄와의 투쟁을 강화하고있다. 나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첫 8개월동안에 각종 무기들을 비법적으로 소유하고있던 150명의 범죄자들이 체포되였다. 법에 따라 비법적인 무기소유자들에게 3~7년간의 감금형이 적용되게 된다 한다.

마약 압수

벨라루씨에서 마약밀수행위를 막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이 나라 법보호기관 성원들은 뽈스까와의 국경지역에서 마약수색작전을 벌려 163kg의 하쉬쉬를 적발압수하고 1명의 마약관련 범죄자를 체포하였다.

여러 나라들 협조

꾸바와 빠나마가 18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에 기초하여 쌍무협조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앞서 17일 아르헨띠나와 보쯔와나는 정치, 경제분야에서 호상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 및 국제문제해결에서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 자연피해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많은 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폭우로 수천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겨 농민들의 생계에 난관이 조성되였다고 한다.

미국에서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17일 번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날 주에 있는 2개의 원유탕크가 번개에 맞아 폭발을 일으켜 많은 물질적손실이 초래되였다.

한편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12일 산불피해가 났다. 약 520ha의 산림이 불타버리고 많은 살림집과 건물들이 파손되였으며 수십세대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산불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산불로 14일현재 주의 북부지역에서만도 약 1 220ha의 산림이 황폐화되고 130여세대의 주민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으며 400여세대에 추가로 긴급대피령이 내려졌다.

또한 미국의 서남부지역에서 최근 폭우피해를 입고있다.

8일 아리조나주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주민지대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학교들이 문을 닫고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기타 3개 주들에서도 폭우로 많은 지역들이 물에 잠긴것과 관련하여 경계령이 내려졌다.

카나다에서

카나다의 서부지역에 최근 때이른 폭설이 들이닥쳤다. 10일까지 3일째 계속된 폭설과 추위로 100만명의 주민들이 생활상 고통을 겪고있다.

학교들이 문을 닫고 교통이 마비되였으며 송전선들이 끊어져 주민지대와 공공건물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웰남에서

웰남의 북부지역에서 17일 열대성폭풍으로 인한 산사태피해를 입었다. 산사태로 7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약 5만 5 000명의 주민들이 긴급소개되였다.

프랑스에서

프랑스의 남부지역에서 18일 폭우피해가 났다. 이날 폭우에 의한 큰물이 야영지를 휩쓸어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에스빠냐에서

에스빠냐 알리깐떼시에서 최근 산불이 일어나 피해가 났다. 산불로 12일현재 많은 살림집과 건물들이 파괴되고 약 1 500명의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등 혼란이 조성되였다. 또한 짙은 연기때문에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형성시도 배격

— 이란고위성직자 아흐마드 잔나티가 19일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형성시도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반테로》의 구실밑에 그 무슨 국제적련합을 형성하려는것은 하나의 기만극이며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세계는 서방나라들이 테로그루빠를 산생시키고 도와주고있다는데 대해 잘 알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이란국회 국가안전 및 대외정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체스꼬외무성 부상과의 담화석상에서 미국의 《반테로》정책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테로》정책은 중동에서 테로를 전파시키는 주요원인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 이란내무상이 15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테로전》을 배격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이란정부는 테로와 인권, 평화적핵에네르기관련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로부터 중동지역에서 벌리려는 그들의 《반테로전》에 대해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테로문제에서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이라크와 수리아에 대한 군사행동에 항의하는 미국인들

전염병피해와 그 방지노력

▲ 서아프리카나라들에서 에볼라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18일 세계보건기구가 밝힌데 의하면 지난 1주일동안에만도 리베리아, 시에라레온, 기네를 비롯한 지역나라들에서 700명이상의 에볼라환자가 새로 등록되였다. 이로써 5 300여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였으며 그중 2 600명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 일본에서 뎅구열피해가 확대되고있다. 16일 이 나라 후생로동성은 10명의 뎅구열환자가 새로 등록되였다고 하면서 총 환자수가 12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 에볼라방지에 관한 동아프리카지역 상급회의가 17일 케니아의 나이로비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지역의 5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에볼라비루스전파방지와 관련한 대책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참가자들은 비루스가 발생하면 즉시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며 비루스전파방지를 위한 공동전략을 작성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회의에서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 시에라레온정부가 18일 전국적으로 에볼라방지깜빠니야를 개시하였다. 이번 깜빠니야는 에볼라비루스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고 감염자들을 제때에 찾아내여 치료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그에 따라 주민들속에서 위생선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게 된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

실업위기

미국에서 실업문제가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18일 미로동성은 13일까지의 지난 1주일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가 28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경상수지적자

미국에서 2.4분기에 경상수지적자가 985억 1 000만US$에 달하였다. 17일 미상무성이 이에 대해 밝혔다.

일자리 축감

일본의 도시바회사가 18일 리윤손실보상을 구실로 일자리축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체에서 약 9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한다.

한편 일본의 전기제품제작업체인 파이어니어회사가 16일 구조조정의 미명하에 일자리축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기업체에서 2 000여명의 종업원들이 무리로 해고당하게 된다.

각종 범죄 성행

오스트랄리아에서 18일 갖은 테로행위를 일삼던 범죄자 15명이 체포되였다. 같은 날 이 딸리아의 뿌글리아지역에서 마피아조직이 적발되여 16명의 범죄자들이 붙잡혔다.

한편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18일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주민들속에서 커다란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였다. 이날 50대의 남성이 한 살림집에 뛰여들어 마구 총질을 하여 7명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주공간을 어지럽히는 침략과 지배의 마수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이 적극화되고있다. 2003년까지만 해도 우주개발에 참가한 나라수는 37개에 불과했다. 2013년에 와서 그 수는 58개로 늘어났다. 10년동안에 20여개의 나라들이 새롭게 우주개발에 뛰여든것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 몇몇 나라들이 판을 치던 우주개발시대가 이미 막을 내리고 광범한 나라들이 참가하는 새로운 우주개발시대가 펼쳐졌다는것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인류공동의 재부인 우주가 사람들의 필수불가결의 생활령역으로 보다 가깝게 접근하고있음을 시사해준다.

사실상 우주공장과 우주태양에네르기발전소건설, 우주려행, 달탐사를 비롯한 우주개발계획들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로 되고있다. 위성을 통하여 통신과 먼거리의료봉사, 항행조종을 진행하고있으며 자원탐사, 재해방지 및 구제사업에서 전진이 일어나고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우주과학기술분야에 1US$를 투자하면 경제전반분야에서 8US$의 수입을 얻을수 있다고 한다. 앞으로 세계경제발전의 생명선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될것이라고 하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래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되는 광활한 우주에로의 진출은 세계 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전략적목표로 되고있다.

우주개발이 세계적인 추세로 된 현시기 국제사회가 마땅히 경계하고 엄중시해야 할 점들이 있다. 그것은 우선 주권존중과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여야 할 우주공간이 왕왕 모순에 찬 국제질서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하는가에 따라 정상적인것으로 될수도 있고 문제거리로도 될수 있다. 이 말은 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국제질서가 세워지고 미국식해석에 따라 선과 악이 정해지는 불공정한 세계를 그대로 함축하고있다. 공정성이 심히 결여된 이러한 이중기준은 우주공간에서도 답습되고있다.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우리 공화국의 위성발사, 당당한 주권행사가 범죄시된 사실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우리의 실용위성 《광명성—3》호 2호기발사의 평화적성격은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거부감에 물젖어있는 적대국의 전문기관들도 인정한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의 북아메리카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지 3시간만에 《조선의 위성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위성도 로케트도 그 잔해도 미국의 안전에 위협으로 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로씨야를 비롯한 유럽지역 나라들도 우주궤도를 정확히 돌면서 밝은 빛을 뿌리는 우리의 《광명성—3》호 2호기위성을 관측하고 촬영까지 하여 세상에 공개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막무가내로 우리의 위성발사권리를 부정해나섰다.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불법》, 《비법》으로 몰아대면서 유엔에 끌고가 천만부당한 《제재결의》까지 조작해냈다.

우리가 위성을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여 발사하였기때문에 문제시된다는것이 반공화국《제재결의》를 고안해낸자들이 내세우는 론거였다. 그들의 론법대로 한다면 탄도미싸일기술로 1 90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올린 미국이나 기타 렬강들이 누구보다 먼저 범죄시되여야 할것이였다. 오죽하면 서방언론들까지도 같은 방식의 위성발사인데 북이 하면 미싸일발사로 되고 다른 나라가 하면 위성발사로 된다는것은 납득할수 없다, 제도상의 차이에 따라 합법성과 비법성을 규정하는 미국의 처사는 명백한 이중기준이다라고 비평하였겠는가.

위성발사를 제일 많이 하였으며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하지 않고 위성을 하늘높이 떠올리는 방법이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나라들이 제가 발사한것은 위성이고 우리가 발사한것은 장거리미싸일이라는 식으로 우겨대는것은 자기기만이였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 나라의 위성운반로케트는 저들을 위협하는 장거리탄도미싸일로 전환될수 있기때문에 평화적인 위성발사도 할수 없다는 미국의 적대적관점과 날강도적인 론리에 있었다. 애초에 미국은 우리의 위성발사를 또 하나의 반공화국압살계기로 만들려고 작정하였던것이다.

비단 우리 나라만이 아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비롯하여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위성발사계획을 가로막기 위한 책동이 여느때없이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우주정복의 시초가 열린 때로부터 국제사회는 시종일관 평등한 권리와 평화적목적을 우주개발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웠으며 이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우주헌장》으로 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나라에 굴종하고 아부하지 않으면 발전의 길도 막아버리고 자주와 국제적원칙대로 행동하면 《범죄》와 《악》으로 락인하는 특정국가의 횡포한 강권행사가 거리낌없이 감행되고있다.

주권국가들의 우주진출을 봉쇄하고 억누르려는 이러한 사태는 오늘날 우주공간이 최첨단과학기술의 대결장, 미래의 자원쟁탈마당이기에 앞서 진보와 반동사이의 치렬한 대결장,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심각한 정치적대결마당이라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준다.

로골화되는 우주군사화는 현시기 우주개발에서 스쳐보낼수 없는 또 다른 문제점이다.

《달과 기타 천체들을 포함한 우주탐사와 리용에서 국가들의 활동원칙에 관한 조약》 제4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천체들에 군사기지, 군사적시설물 및 요새들을 설치할수 없으며 그곳에서 그 어떤 종류의 무기시험이나 군사훈련을 하는것을 금지한다.》

국제법적으로 평화적성격이 아닌 우주에서의 군사활동이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는 리념이 여기에 맥박치고있다.

허나 미국은 우주개발에 뛰여든 첫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주를 세계제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우주군사화책동에 박차를 가하여왔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쏘련의 군사적위협》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1959년 1월 10일 미국회 하원 우주문제위원회는 《우주공간이 선진군사과학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우주군사화를 제창해나섰다. 1999년에 미국은 세계적인 우주군사비지출액의 95%를 차지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의 우주독점광기는 극도에 달하였다.

요격미싸일제한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은 우주독점을 정식 국가정책으로 규정하고 우주를 리용한 세계제패전략을 실천단계에 옮겼다. 우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진출과 리용을 제한할수 있는 그 어떤 국제적인 군축합의도 반대하며 필요하다면 미국의 리익을 적대시하는 나라가 우주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우주정책》이 발표되였다. 특히 미국은 2020년까지의 장기우주계획에서 잠재적인 《적》의 원거리통신위성들을 마비시키기 위한 공중기지 및 우주기지위성요격체계, 《적》의 정찰위성들을 파괴하거나 저애하는 우주기지체계, 새 세대 미싸일공격예보체계 등의 개발을 주되는 과제로 내세웠다. 2025년까지는 우주전투기부대를 배비할것을 획책하고있다.

미국이 발광적으로 추진하고있는 우주군사화의 침략적성격은 여러 전쟁마당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이전 유고슬라비아에 첫 공격을 가하는데 리용된것은 미국의 정밀유도무기였다. 함정에서 발사하는 미싸일이나 스텔스전투폭격기에서 투하하는 스마트폭탄들이 미국의 전지구위치측정체계에 의하여 목표로 유도되였다. 이라크전쟁에서도 미군은 근 90개의 위성들을 리용하였다.

현 미행정부는 위성을 리용하여 미본토의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파키스탄의 상공으로 무인기를 들이밀어 《테로분자》들을 소탕하는 무인기전쟁을 추진하고있다.

미국의 우주군사화책동은 우주에서의 새로운 군사적대결과 군비경쟁을 몰아오고있다. 렬강들속에서 위성요격시험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우주무기개발과 그 배비가 다그쳐지고있다. 특히 미국이 전지구위치측정체계를 다른 나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는데 대응하여 독자적인 항법위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나라별로, 지역별로 벌어지고있다.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전지구위치측정체계에 대해 유럽의 갈릴레오, 로씨야의 글로나쓰, 중국의 북두항법위성체계가 맹렬한 추격전을 벌리고있는 상태이라고 평하였다.

우주를 군사화하여 지배주의적목적실현에 리용하려는 기도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이다.

우주는 결코 그 누구의 군사적우위확보를 위한 독점물이 될수 없다.

인류공동의 소유인 우주는 평화적리용대상으로서 철두철미 사람들의 복리와 문명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배 금 희

ㄱ-41149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